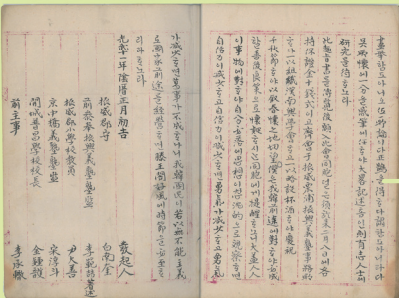


소사벌

2021

평택 문화의 향기를 담아내는 종합문예지
Culture Magazine Sosabul Vol. 36



소사별

2021

평택 문화의 향기를 담아내는 종합문예지
Culture Magazine Sosabul Vol. 36



2021년 10월 / 통권 제36호

발행인 평택문화원장 이보선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신태식

위 원 박성복, 강기중, 김희경, 이형범, 홍인석

편집 오민영, 최치선, 황수근, 강하늘

발행처 평택문화원

발행일 2021년 10월 22일

주소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77

전화번호 031-655-2002

전송 031-654-8807

홈페이지 www.ptmunhwa.or.kr

출판 나무기획 031-654-0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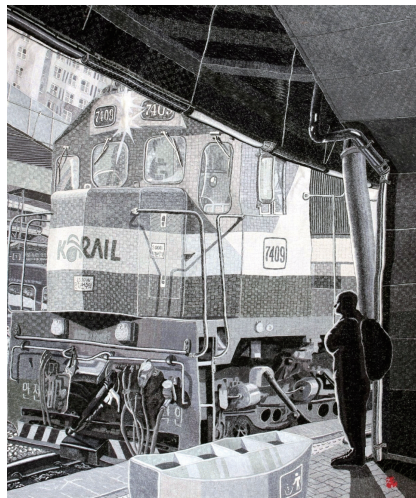
© 2021 평택문화원 ISSN 1739-9556

※ 이 책의 게재 내용은 평택문화원의 정책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책은 평택문화원의 동의 없이 무단전제와 복제를 금합니다.

※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 이 책은 평택시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기획특집 평택 지역사회 인물 발굴조명

- 04 구천 이세필
- 10 사양재 강호보와 평택
- 14 평택 지역 근대 교육의
씨앗을 뿌린 이범철

평_平채우다

- 18 빛바랜 사진이야기
- 22 평택문화를 반추하다
- 26 평택을 품은 이야기
- 30 평택이가 대신 탐방해드립니다
- 34 청북초등학교
- 38 여기는 평택이다
- 42 재봉틀로 그리는 세상
- 46 아버지의 문화생활
- 50 평택박물관 건립을 위한 제언
- 54 『대곡일기』에 담긴
농촌 의료의 풍경
- 58 조선시대 평택의 인구와 토지

택_澤더하다

- 64 평택에 유물이 이렇게 많다고?
- 70 『감각의 정원』展
- 74 사라지기 전, 그리움을 남기다
- 78 평택문화 CAFE
- 82 『독립운동가 이석영의 꿈』을 읽고
- 84 느티나무가 된 이무기 진위
- 88 시민의 축제 소사벌단오제
- 92 평택시티투어
- 96 평택문화원 소개



구천 이세필 초상(18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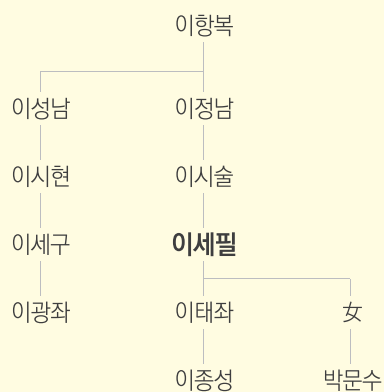
구천(龜川) 이세필

권행완 건국대학교 교수

구천(龜川) 이세필(李世弼, 1642~1718)은 백사(白沙) 이항복(李恒福, 1556~1618)의 증손자이자 이조참판 이시술(李時術, 1606~1672)의 아들이다. 8대에 걸쳐 정승을 배출한 삼한갑족의 명문가 출신이다.

이세필은 예송의 시대에 살았다. 예송의 중심인물 자의대비(慈懿大妃) 조씨는 1624년 태어났다. 그녀는 인조가 삼전도의 굴욕적인 사건을 겪은 바로 이듬해인 1638년에 15살의 꽃다운 나이에 인조의 계비가 되었다. 효종이 1659년 집권 10여 년 만에 갑자기 사망하자 서인과 남인 간에 자의대비의 상복 입는 기간 문제를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것이 그 유명한 제1차 기해예송이다.

경주이씨 상서공파 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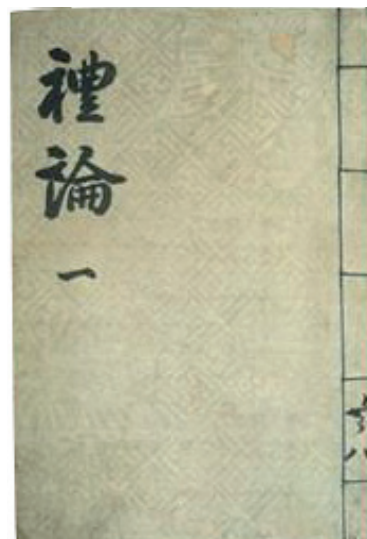




진위면 봉남리 아곡마을 전경

남인은 효종이 왕위를 계승한 장남이므로 자의대비는 3년 상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인은 종법상으로 효종이 차남이므로 1년 기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과 사대부의 예는 같다는 예법의 보편성을 주장하는 서인과 왕실에 적용되는 예는 사대부와는 다른 특수성의 논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남인은 충돌했다. 현종은 수차례의 의견을 수렴한 후 결국 서인들이 주장한 기년복으로 결정한다. 예송논쟁은 전국을 강타했다. 봉림대군의 스승이었던 고산 윤선도는 서인들의 주장은 효종을 깎아내리는 처사라고 공격했다. 서인들도 격분했다. 결국 윤선도는 삼수로 유배되었다.

1674년에는 효종의 비 인선왕후(仁宣王后)의 국상이 일어났다. 자의대비(慈懿大妃)는 비록 시어머니이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펄펄하게 살아 있었다. 서인과 남인은 자의대비의 상복 문제로 또다시 논쟁을 벌였으니 제2차 갑인예송(甲寅禮訟)이다. 현종은 서인이 효종의 종통을 비하했다며 분노했다. 이번에는 남인의 승리였다. 서인의 영수 우암 송시열은 삭직 당하고야 말았다. 그해 8월에 느닷없이 현종마저 유명을 달리한다. 속



효종 사후 자의대비의 복제에 대하여 여러 신하가 변론한 내용을 편집한 『예론』

종은 즉위하자마자 서인들을 대거 축출하고 남인으로 정국을 개편한다. 인조반정 50년 만의 일이었다.

당시 33살 유생 이세필은 분개했다. 그는 100여 명의 선비들을 설득하여 상소를 올리는 데 앞장섰다. 1차 예송 때 대왕대비가 기년복을 입은 것은 여러 대신들의 의논에 따라 한 것인데 마치 송시열이 주장해서 시행한 것처럼 단정하고, 인선왕후 국상 때는 예조에서 기복의 뜻을 미루어서 한 것 같은데 이것을 송시열에게 죄를 얹어매어 무함하니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고 다그친다.



진위면 봉남리 아곡마을과 이세필묘

숙종은 이세필의 상소를 보고 매우 통탄스러운 일이라며, 많은 선비들이라고 금령을 돌보지 않고 상소를 받아들이는 승지 등의 죄과를 엄중히 캐물어서 밝히고, 상소의 주모자 이세필은 먼 변방으로 유배 보내라고 지시한다. 이에 도승지 김석주와 좌승지 이동로는 이세필 등이 스승의 억울함을 호소할 줄만 알았지 금령의 엄함을 알지 못한 죄는 진실로 심한데, 이는 어느 한 필부의 단순한 말과는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서로 의논하고 받아들인 것이라고 보고한다. 영의정 허적은 상소의 우두머리인 이세필을 변방으로 귀양보내는 것은 조금 과하다고 건의한다. 그러나 숙종은 결단코 그 만들 수 없다며 이세필을 전라도 영광으로 유배 보내버리고 만다.

이세필은 유배지 영광에서 5년 동안 문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책만 읽었다. 1678년 유배에서 풀려나고, 1684년 학행으로 천거되어 파격적으로 형조좌랑에 제수된다. 이후 용안현감(익산)과 진위현령을 지낸다. 명재(明齋) 윤증(尹拯, 1629~1714)은 이세필에게 보낸 편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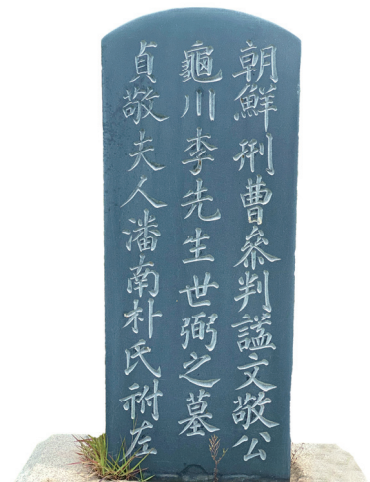
서 “용안에서 굶주린 백성을 진휼했고, 진위에서는 도로를 넓혔다”고 밝힌다. 명재와는 녹봉을 나누어 도와줄 정도로 막역했다. 또한 『심경석의(心經釋疑)』의 인심(人心)과 도심(道心)의 문제와 『대학』의 격물지치(格物致知) 등에 대해 구천 이세필이 질문하고 스승 우암 송시열이 답하고 명재 윤증이 논평하는 것을 보면 학문적으로도 격의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조선 양명학의 체계를 세운 하곡 정제두는 윤증과 각별한 사제관계였는데 양명학을 정립해 가는 과정에서 이세필과의 변정(辨正)을 통해 윤증의 학설을 구체적으로 인용하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이세필은 1689년 기사환국으로 정권을 잡은 남인이 율곡 이이와 우계 성혼을 문묘에서 출향시키려 하자 관직을 내던지고 낙향해 버린다. 낙향 후 그가 처음 정착한 곳은 진위면 봉남1리 향교말이다. 말년에 봉남3리 아곡마을로 이거했는데 이 일대가 선조들의 사패지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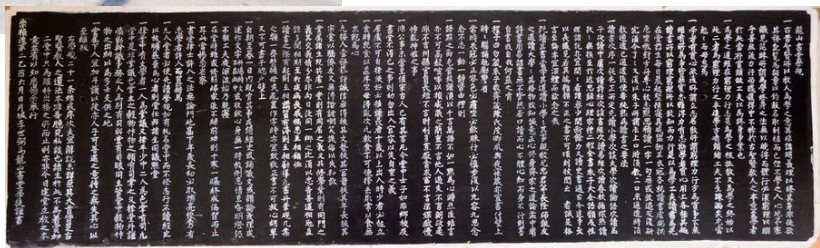
이세필 신도비



이세필 묘비



이세필이 세운 동해 용산서원



이세필이 제정한 학규(學規) 21조로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78호 「동해 용산서원 학규」(1705)

이세필의 호 구천(龜川)은 진위천에서 봉남3리로 들어가는 지류의 이름이고, 아들 이태좌의 호가 아곡마을의 아곡(鵝谷)인 것만 봐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세필은 1694년 갑술환국 후에 소론 정국으로 바뀌자 김제군수 등을 역임했다. 이후 관직을 제수해도 나아가지 않고 『대학』과 『예학』 등 학문 연구에만 전념했다. 그는 사망하기 1년 전 1717년에 시골에 거처하고 있었는데, 이때 숙종이 이이명을 몰래 불러 세자(경종)가 병약하고 자식이 없으니 후사를 연잉군(영조)으로 정할 것을 부탁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이 소문을 듣자마자 이세필은 어찌하여 이런 분부를 할 수 있느냐며 정성을 다하여 간

절하게 상소를 올린다. 당나라 때 당 덕종이 아들을 의심하여 폐하려 하고 서왕을 태자로 세우려 할 때 재상 이필이 당 덕종에게 심사숙고하고 신중하게 행동할 것을 직언하여 태자에게 아무런 음모나 다른 뜻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사례를 들어 설명한다. 그러면서 삼강(三綱)이 끊어지면 망하지 않는 나라가 없다. 부자(父子)는 천성(天性)이고 태자는 천하의 근본이라며 숙종으로 하여금 마음을 돌이킬 것을 촉구한다. 이에 숙종은 나라 일을 근심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정성에서 나온 것이라고 변명한다. 다음 해 이세필이 죽자 세상에서 임금의 마음을 돌리고 사직(社稷)을 부지하게 한 힘으로 돌리니, 여러 유자(儒



이세필 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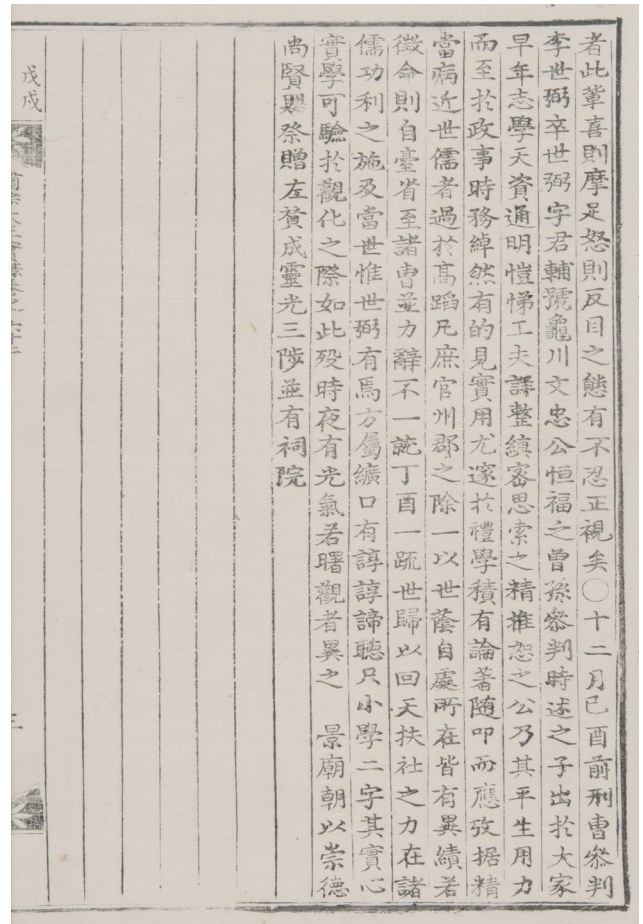
者) 중에서 공리(功利)를 당세에 베풀고 미치게 한 이는 오직 이세필이 있을 뿐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정사(政事)와 시무(時務)에 이르러서는 여유 있게 확실한 견해와 실질적인 응용이 있었으며, 더욱 예학(禮學)에 조예가 깊어 논저(論著)를 쌓아 둔 것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묘당에서 청백리를 선발할 때 통용질(通用秩)에 선발된 선비이기도 했다.

호조판서를 지낸 아들 이태좌(李台佐, 1660~1739)는 아버지 이세필이 지은 『왕조예문(王朝禮文)』을 영조에

게 바치기도 하고, 고종 때 영의정을 지낸 이유원(李裕元, 1814~1888)은 양자 문제로 상소를 올리며 선조 이세필의 『예론』을 본받지 않을 수 없다고 하자 고종도 그 『예론』이 명백한 증거가 된다고 말한다. 이세필이 예학에 얼마나 정통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암행어사로 이름을 날렸던 박문수는 이세필의 외손자이다. 영조는 박문수에게 경은 훌륭한 유학자의 외손이라고 말하면서 경상감사로 발탁하는 것을 보면 이세필은 학문적으로도 당대의 학자로서 크게 인정받은 듯하다.

전(前) 형조참판(刑曹參判) 이세필(李世弼)이 졸(卒)하였다. 이세필의 자(字)는 군보(君輔)이고 호(號)는 구천(龜川)으로, 문충공(文忠公) 이항복(李恒福)의 증손(曾孫)이고 참판(參判) 이시술(李時述)의 아들이다. 지체 좋은 집안에 태어나 일찍부터 학문에 뜻을 두었는데, 타고난 자질이 사리에 통달하고 기상이 단아하였으며, 공부(工夫)는 자상하게 정돈되고 치밀(緻密)하여 사물의 이치를 파고 드는 정밀함과 미루어 용서하는 공정함은 바로 그가 일평생 동안 힘을 기울였던 바였다. 정사(政事)와 시무(時務)에 이르러서는 여유 있게 확실한 견해와 실질적인 응용이 있었으며, 더욱 예학(禮學)에 조예가 깊어 논저(論著)를 쌓아 둔 것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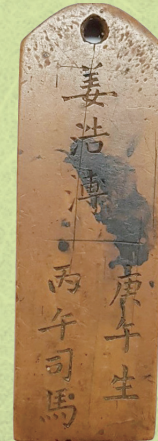
...(중략) 부르는 명(命)이 있을 것 같으면 대성(臺省)에서 여러 조(曹)에 이르도록 모두 극력 사양하고 한번도 취임하지 않았는데, 정유년에 한 차례 올린 소(疏)는 세상에서 임금의 마음을 돌리고 사직(社稷)을 부지하게 한 힘으로 돌리니, 여러 유자(儒者) 중에서 공리(功利)를 당세에 베풀고 미치게 한 이는 오직 이세필이 있을 뿐이었다. **소사벌**



숙종실록, 숙종 44년(1718년) 12월 6일 이세필 졸기



강호보 조카며느리의
묵포도



강호보
진사급제 호패(1727)

四養齋 姜浩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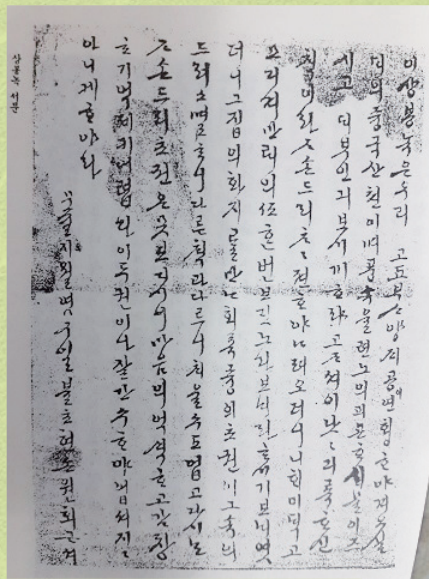
사양재 강호보와 평택

구만옥 경희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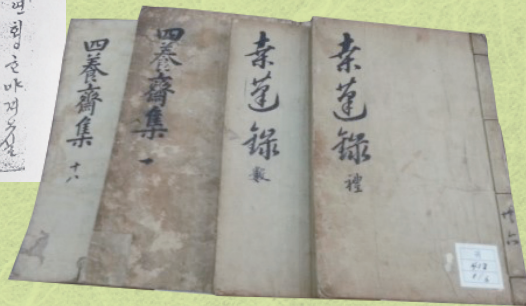
강호보(姜浩溥, 1690~1778)의 본관은 진주(晉州)이며 부친 강석규(姜錫圭)의 측실(側室) 소생이다. 어머니는 안동김씨 김성급(金成岾)의 딸로 서족(庶族)이었다. 강석규가 숙종 21년(1695)에 별세하자, 강호보의 어머니는 자신의 소생인 1녀 2남을 거느리고 분가했다. 당시 강호보의 순위 누이가 여덟 살, 강호보가 여섯 살, 동생 강

연보(姜淵溥)가 두 살이었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강호보의 어머니는 어린 자식들과 함께 생계를 꾸려 가야 했다. 강호보가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고 매우 가난했다”고 회상할 정도로 분가 이후 강호보의 집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다.

조선왕조는 건국 이후 서얼(庶孽)들에 대한 차별 정책



연행록 『상봉록』(연해본) 서문



문집 『사양재집』(체언) 과 연행록 『상봉록』(한문본)

을 실시했다. 조선후기에 들어 서얼들의 집단적인 통청(通淸) 운동으로 사정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서얼들이 자신의 앞길을 개척하는 데는 아직도 사회적 제약 요소가 적지 않았다. 강호보 역시 이러한 사실에 유념했을 것이다. 그가 철이 들고나서 먼저 선택한 길은 거자업(擧子業)이었다. 과거 합격을 통해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고 어머니를 잘 봉양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이 필요했다.

강호보의 진로에 전기가 마련된 계기는 혼인이었다. 강호보의 처가는 김해김씨로 팽성(彭城: 평택)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강호보는 어머니를 모시고 팽성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강호보는 혼인 이후에 아우인 연보와 다짐을 했다. 아우

는 재산을 다스리는 데 힘을 쓰고 자신은 문장을 다스리는 데 힘을 쓰면 양지(養志)와 양물(養物), 다시 말해 부모의 뜻을 받들고 물질적으로 봉양하는 데 모자람이 없으리라는 것이었다. 이후 10여 년 동안 이와 같은 다짐을 이행하여 집안의 재물이 넉넉해지자, 강호보는 영리에 뜻을 두지 않고 학문 탐구에 몰두하게 되었다.

강호보는 1724~1725년경 송시열(宋時烈, 1607~1689)과 권상하(權尙夏, 1641~1721)를 잇는 정통주자학자인 한원진(韓元震, 1682~1751)의 문하에 들게 된다. 한원진은 강호보의 가문과 혼맥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강호보의 적종손(嫡從孫: 적형 강제보(姜濟溥)의 손자)인 강규환(姜奎煥, 1697~1731)의 외숙이었던 것이다. 이후 강호보는 한원진과의 강학(講學)을 통해 그의 학문을 계승하는



영 조 너는 무엇으로써 임금을 섬기겠느냐?

강호보 신에게는 백세의 노모가 계시니, 어머니를 섬기는 마음으로 임금을 섬기겠습니다.

영 조 (웃으면서) 아뢰는 말이 진실로 순박하고 솔직하다. 너의 모친은 나이가 얼마인가?

강호보 91세입니다.

영 조 귀하다. 91세의 나이로 65세 아들의 과경(科慶: 과거에 급제한 경사)을 보았으니 진실로 희귀(稀貴)하다.



주자의 글을 주제에 따라 엮은 『주서분류』

한편, 주자학에 대한 세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강호보는 자신이 병진년(1736, 영조 12) 이래로 과거를 폐하고 두문불출하면서 오로지 ‘주자서(朱子書)’로써 노년의 허물을 보완할 계책을 삼았다고 하였다. 사실 그는 생원시에 합격한 영조 2년(1726) 이전부터 과거 시험공부가 학문 활동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한 한원진의 뜻을 받들어 과거를 그만두겠다는 뜻을 어머니께 피력했으나 어머니의 반대에 부딪쳐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런데 병진년 별시(別試)에 낙방한 이후 과거 공부를 그만두어야

하는 다섯 가지 이유를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드디어 허락을 받았던 것이다.

그로부터 40년 동안의 학문적 노력을 통해 이룩한 성과물이 바로 『주서분류(朱書分類)』였다. 그것은 『주자대전(朱子大全)』과 『주자어류(朱子語類)』를 비롯한 주자의 모든 언설(言說)을 주제별로 분류해서 체계적으로 종합·정리하고자 한 책이었다. 이는 궁극적으로 ‘주자만년정론(朱子晚年定論)’을 확정하고자 했던 서인-노론 계열의 학문적 노력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사업이었다. 일찍이 이 사업을 시도한 이는 송시열이었고, 이것이 한원진을 거쳐 강호보에게로 이어졌던 것이다. 강호보가 『주서분류』의 서문을 작성한 것은 그의 나이 87세 때인 영조 52년(1776)이었다. 『주서분류』는 그야말로 “40년 동안 밤낮으로 공을 쌓아서 완성한 것”으로, 강호보의 40년에

걸친 학문적 노력의 결실이었다. 초고가 완성되었을 때 『주서분류』는 84권의 거질이었으며, 이는 조엄(趙曦, 1719~1777)의 조력을 얻어 정본화(淨本化)되었다.

강호보는 어머니의 강청에 못 이겨 그의 나이 65세 때인 영조 30년(1754) 윤4월 3일에 시행된 증광시(增廣試)에 응시하였고, 갑과(甲科) 2위, 즉 전체 2위로 문과(文科)에 급제하였다. 영조는 11일에 문과 급제자들을 면담했는데, 당시 강호보와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었다.

영 조 : 너는 무엇으로써 임금을 섬기겠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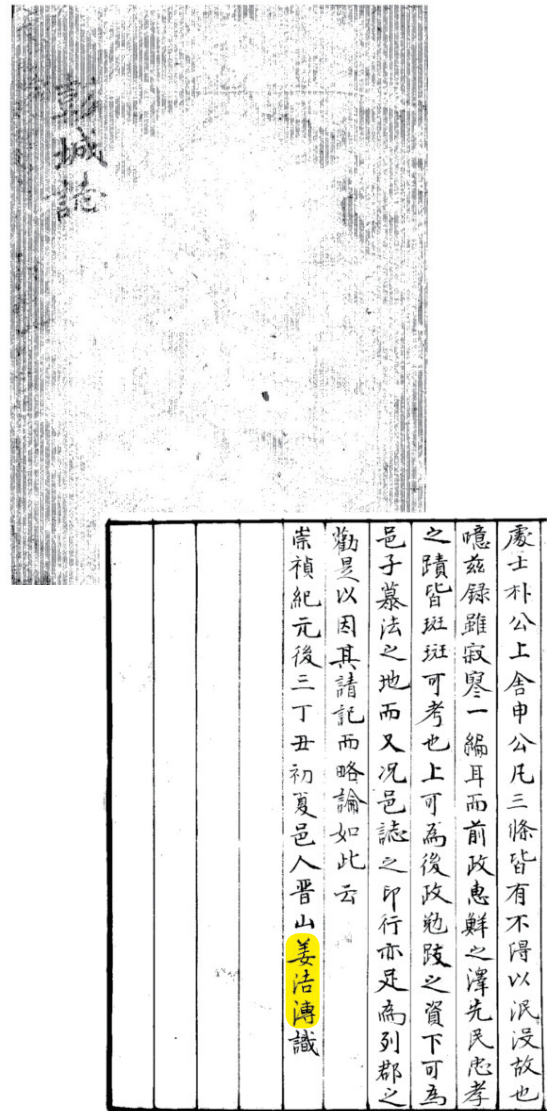
강호보 : 신에게는 백세의 노모가 계시니, 어머니를 섬기는 마음으로 임금을 섬기겠습니다.

영 조 : (웃으면서) 아뢰는 말이 진실로 순박하고 솔직하다. 너의 모친은 나이가 얼마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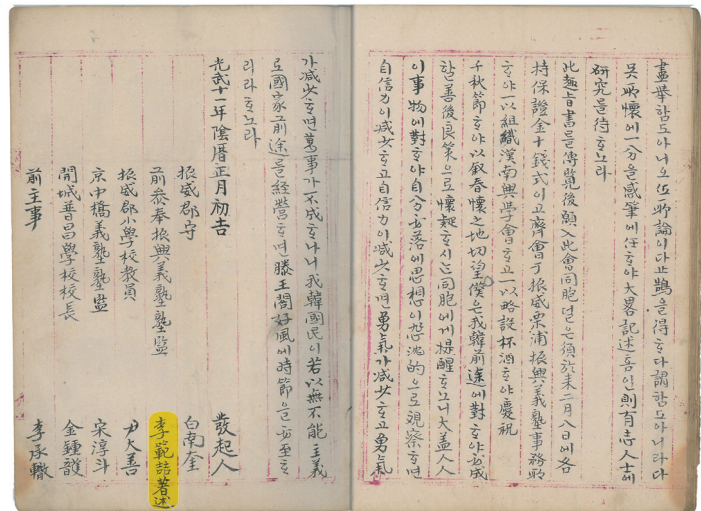
강호보 : 91세입니다.

영 조 : 귀하다. 91세의 나이로 65세 아들의 과경(科慶: 과거에 급제한 경사)을 보았으니 진실로 희귀(稀貴)하다.

강호보는 혼인 이후 평택에 거주하면서 지역 사회의 여러 문제에 관여하였다. 그 가운데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이 평택의 지리지라 할 수 있는 『평성지(彭城誌)』의 편찬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이다. 강호보가 발문을 쓴 『평성지』는 숙종 25년(1699)에 편찬된 것을 증보한 것으로, 영조 33년(1757)에 편찬되었다. 강호보는 이와 같은 읍지(邑誌)가 지역을 거쳐간 지방관들의 업적과 선민(先民)들의 충효(忠孝)의 자취를 고찰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시했다. 그것이 앞으로 이 지역에 부임할 지방관들에게는 올바른 정사의 선례를 제시하는 한편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본받아야 할 윤리적 모범을 제시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소사별**



강호보가 발문을 쓴 『평성지』(1757년)



한남흥학회취지서 발기인명단에 이범철(박성복 소장)

평택 지역 근대 교육의 씨앗을 뿌린 이범철

장연환 효명고등학교 교사



이범철의 가계와 평택 입향

고덕면 율포리 마을회관 앞에 '이승지택'으로 불리는 저택이 있었다. 신도시로 편입되기 전까지만 해도 마을 토박이들은 대부분 이승지택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승지는 과거에 합격하고 벼슬이 정3품 동부승지까지 올랐던 이범창(李範昌, 1854 - ?)을 가리킨다. 이범창은 전주 이씨 광평대군파 17대손이다. 그는 참봉 벼슬을 했던 이장하의 둘째로 태어났으나, 그의 종숙(從叔)이며 증조부 이래 3대 장손인 이명하의 양자로 갔다. 그의 형 이범문이 12세 요절하자 자신의 큰 아들 기종을 형의 아들로 입적시켰다. 이범창의 바로 밑 셋째가 이범철(李範喆,

1858 - ?)이다. 이범철 아래로는 넷째 범규와 다섯째 아들 범구가 있었지만, 특별한 행적을 남기지 않았다.

족보에는 이범창이 아들 셋을 둔 것을 끝으로 이후 후손들에 대한 기록이 없고, 이범철은 아예 후사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범창의 후손은 대부분 1960년대 미국으로 이주하였으니 집안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족보에 오를 수 없었다고 보이는데, 이범창의 후손이 기록되지 않은 것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 다섯째 이범구 역시 외아들을 끝으로 더 이상의 후손에 대한 기록이 없다. 족보에는 넷째인 이범규만 이후 5대의 후손이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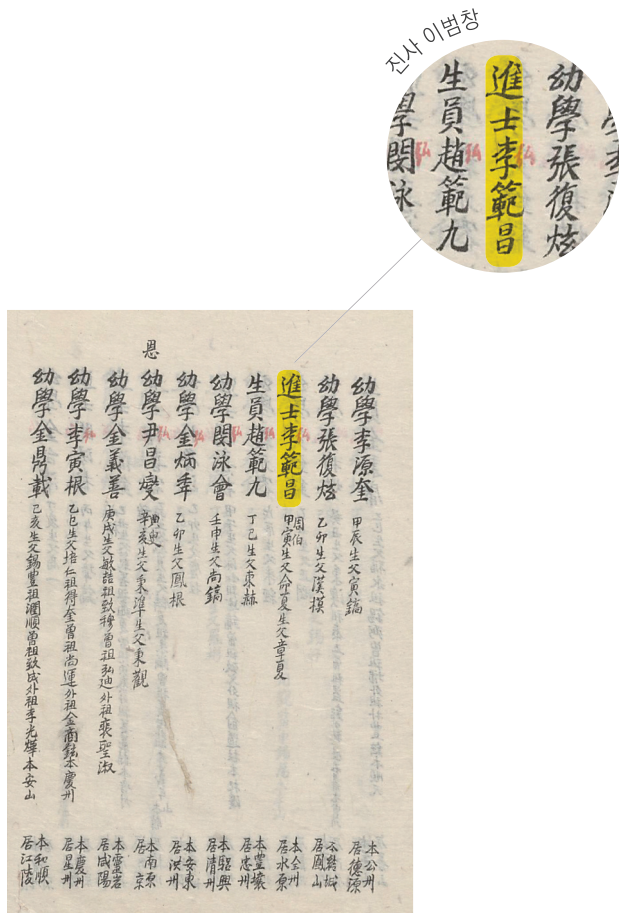
이범철의 7대조 이제(李濟)는 평안도 관찰사, 이제와 4촌간인 이유(李濡)는 영의정, 6대조 이현모(李顯謨)는 흥문관 응교를 역임했다. 그의 증조부인 이수연(李秀淵)이 한성부 판관을 지냈으나 조부는 벼슬에 나가지 못했고, 부친 이장하는 생원시에 합격하고 참봉을 지냈다. 이범창은 문과에 합격하여 정3품 동부승지까지 올랐으며,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을 저지하려다 감금을 당하기도 했고, 대한 자강회와 대한 협회 정회원이 되는 등 애국 계몽 운동에 참여했다. 다른 형제들은 과거 합격 기록이 없고 다만 이범철만 참봉이 되었다. 그의 집안이 언제 어떤 연유로 평택에 입향하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진 것이

없다. 이범철의 고조부와 증조부까지는 현재의 김포시인 통진군에 묘를 썼고, 그의 할아버지 이인섭과 아버지 이장하의 묘가 평택시 장당동에 자리잡았던 것으로 족보에 기록되었다. 묘의 위치로 본다면 그의 할아버지 또는 아버지를 입향조로 간주할 수 있으니, 울포리에서는 2~3대 정도 거주한 것이다.

1912년 일제가 작성한 토지조사부에는 고덕면 울포리, 장당리, 좌교리 일대에만 이범창의 토지 85,811평, 이범철의 토지 38,791평이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재력이 든든한 집안이었다.

근대 교육을 위한 학교 설립

이장하의 다섯 아들 가운데, 이범창과 이범철은 신문과 잡지 및 열국사기(列國史記)를 구독하여 읽으면서 외국의 사정을 접하고 신문물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이들은 평택지역에서 애국 계몽 운동, 특히 근대 교육의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활동은 그동안 평택지역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형이 되는 이범창은 54세가 되는 1908년까지 관직 생활을 했다. 그는 1904년에는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감금당했으며, 대한 자강회와 대한 협회의 정회원으로 활동했다. 그래서 울포리를 중심으로 하는 활동은 주로 이범철이 주도하였거나 실무를 담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까지 이범창은 동생 이범철의 든든한 후원자로서의 역할을 했다. 두 형제는 울포리에 혜민사(惠民社)를 설립하여 빈민 구제 활동을 벌여서 인근 빈민들이 혜민사가 폐지될 것을 두려워할 정도로 효과를 거두었으며, 국채 보상 운동에도 참여하였다.



시마방목에서 이범창(1887)

國債報償義務金 集送人員及額數		振威古頭面栗浦	
李範昌	六圓	李範岳	四圓
李範應		李範一	
邊龜淵	金教惠	金殷相	崔寬一
安相龍	各六拾錢	金連集	姜德化
各五十錢	金聖三	金聖嚴	金聖九
朴萬會	宋連興	各四十錢	金聖玉
崔明甫	金順文	崔聖五	安聖順
金春五	安聖連	各三十錢	金道連
盧三甫	金順化	金聖洛	各二十錢
梁周錫	梁麟錫	各六十錢	金晚鉉
金晚植	梁洪植	梁在厚	金甫連
成用云	安仁燮	朴貴林	各三十錢
裴千一	金鉉三	韓成云	金才用
宋汝根	徐丙俊	徐相億	金泰鶴
各廿錢	金華信	朴弼林	各十五錢
合新貨二十五圓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한 이범창과 이범철(황성신문 1907.6.27)

이범철은 외국에 뒀진 한국 문물을 발전시키기 위한 근본적 요인으로 교육을 꼽고 교육운동에 전념하였다. 물론 정부에서도 1895년 교육입국조서에 이어 소학교령 및 소학교 규칙을 발표할 정도로 근대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와 개인적 소신으로 이범철은 1898년 사립진위소학교를 설립하여 평택 지역에 근대 교육의 씨앗을 뿌렸다. 당시 전국의 학교가 62개소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빠른 시기였음을 알 수 있다. 이 학교는 경술국치 이전인 1909년까지 평택 지역에 세워진 11개의 근대 학교의 출발점이 되었다. 사립진위소학교는

1899년 공립진위소학교로 정식 개교하여 지금의 진위 초등학교로 이어지고 있다.

이범철은 진위소학교 설립에 그치지 않고 한글에 대한 기초 교육을 위해 울포리에 국문학교를 세웠고, 1906

이범창

이범철

년에는 진흥의숙을 설립하여 숙감(塾監: 학교 운영 책임자)이 되었다. 고덕면 두릉리 출신의 안재홍도 진흥의숙에서 공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범창 역시 벼슬에서 물러난 뒤인 1909년에 서정리에 진동학교를 세워서 지역에서 근대 교육을 확산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근대 교육 확산을 위한 노력

이범창은 관직 생활 등 다양한 활동에 대한 기록이 있지만, 이범철은 참봉 벼슬과 지역 교육 활동 외에는 알려진 사실이 없다. 다만, 앞서 언급한 그의 활동과 더불어 1907년 ‘한남흥학회’가 울포리에서 조직되었다는 사실, 『흥학회취지서』를 작성한 인물이 이범창이라는 점은 그가 교육 활동에 매우 열정적이었음을 대변한다.

어떤 과정에서 ‘한남흥학회’가 조직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발기인으로 진위군수를 비롯한 지역 인물, 멀리 서울과 개성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인사들이 동참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평택이라는 특정 지역의 학교 설립을 넘어서 근대 교육을 널리 확산시키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是兄是弟 振威居前承旨리
範昌씨와前參奉리範철씨는兄
弟一心으로忠愛誠이有는昨年
前山林川澤事에리範昌씨가倡
設疏廳하여陳荒地를外人의게
見奪치아니케함은世人에稔聞
을獨擔私立하고近處四五十生
徒를募集하여新學을教育하며
리範철씨는自來仗義疎財하는
風度가裕餘하여凶年이면義捐
穀을自出하여近處貧民을救恤
하며惠民會사를自設하고朱子
社倉例를依倣하여至今까지一
鄉이賴力하며昨年부터各동에
國文學校를獨擔多設하고農民
子姪을夜學으로熱心教育하여
蠟重牧豎라도目不識丁하는數
이無케하며本郡各邑南江外와
相議하고興學會를組織하여教
育殖産方針과地方自治制度를
研究하는데來二月八일에 千
秋慶節祝會를大開하고有知識
한辯士를多請하여實施方略을
講究演說한다하니有志人士는
伊일往參히시면可聞을說이多
히잇다며라

진흥의숙설립관련기사(대한매일신보 1907. 2.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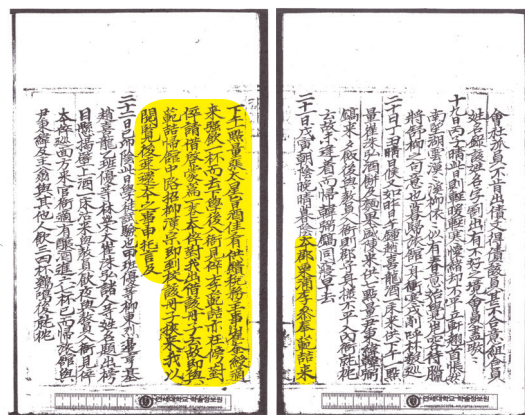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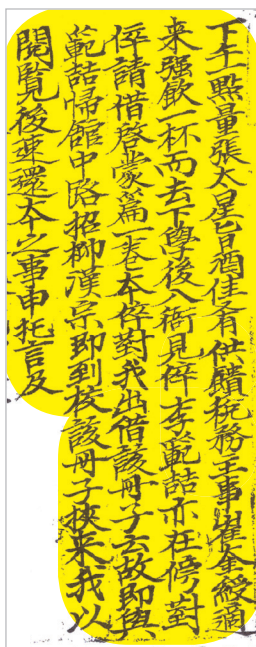
대한제국시기의 교과서 『초등소학』

또한 『홍학회취지서』의 내용은 그가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의 목적과 근대 교육의 실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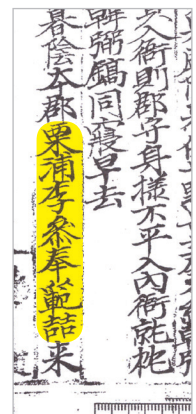
우선 그가 교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표는 자강(自強)이었다. 그는 교육이 자강을 이루어 자주독립을 달성할 수 있는 지름길임을 피력하였다. 구체적인 교육 방식으로 '의무교육'을 제시했다. 남녀 귀천을 가리지

않고 8세가 되면 강제로 모두 소학교에 입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10여 년 정도를 교육에 매진하면 국권을 회복하고 외국에 침탈당한 이권을 환수할 수 있다고 믿었다. 교육의 확산을 위해 홍학회 회원에 회비를 부과하여 기금을 마련하고 학교가 설립되면 물품과 교과서를 보조하며, 진흥의숙의 우수 졸업생으로 하여금 구학문을 가르치는 사람을 교육하여 교사를 확보하려는 방안도 구상하는 등 신교육 확산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였다.

한남홍학회는 참여 인물이나 그 내용으로 보아 대한제국 시기에 이어 일제 강점기에도 평택 지역에 많은 사립학교들이 들어서는데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이범철이 1907년 진위군수 김영진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이범철과 한남홍학회에 대한 기록을 찾을 수 없어 그 구체적 내용은 파악이 어렵다. 그의 활동이 더 밝혀질 수 있도록 새로운 자료가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소사별**



진위군수를 방문한 이범철(진교일기)



이범철의 진교일기

빛바랜 사진이야기 / 군민·시민의 날 행사



제2회 평택군민의 날 1973년 / 평택군공설운동장(비전동, 한광중·고등학교 앞)

1972년 처음 시작된 ‘평택군민의 날’ 행사는 읍·면민, 기관·사회단체장, 학생, 군 장병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한 가운데 지금의 한광중·고등학교 앞에 위치한 평택군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되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 입학고사를 앞둔 중·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평택군민체육대회에 동원돼 수만 명의 인파가 몰려 인산인해를 이룬 가운데 ‘평택군민의 날 체육대회’ 개최식을 진행하였다. 당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군민체육대회 날에는 학교로 등교하지 않고 평택군공

설운동장으로 집결해 출석을 확인하곤 하였다. 특히 일부 학교 학생들은 매스게임을 위해 한 달여 전부터 연습에 돌입, 체육대회 당일 운집한 수많은 평택군민과 학생들 앞에서 학교의 명예를 걸고 매스게임을 선보였다.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제2회 평택군민의 날’ 행사에는 행사명을 알리는 아취에 ‘20만의 협동으로 번영하는 우리 지역’, ‘근면 자조 협동 유신 과업 완수’ 구호가 표기되어 당시 평택군 인구가 20만 명이었으며, 1972년 10월 유신 직후에 개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10회 평택군민의 날 1981년 10월 5일 / 평택군공설운동장(비전동, 한광중·고등학교 앞)

‘제10회 평택군민의 날’ 행사에는 ‘군민 위안 KBS 가요쇼’ 방송 프로그램도 유치해 군민의 날 축하공연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군민 위안 KBS 가요쇼’는 KBS 한국방송공사가 주최하고, 평택문화원 주관, 평택군 후원, 평택상공회의소와 평택공업인협의회 협찬으로 마련되었다.

평택읍 비전리 한광중·고등학교 앞에 위치했던 평택군공설운동장은 육상 트랙과 잔디구장, 관중석 등이 지금처럼 잘 갖춰지지 않았다. 평택군 팽성읍에 주둔한 주한미군 K-6 험프리스수비대의 협조로 행사 직전 불

도저와 굴삭기를 동원해 운동장과 경사지 법면을 정비하는 수준으로 ‘군민의 날 행사’와 ‘군민체육대회’를 치렀다. 당시 축하공연도 미군과 육군 51사단의 협조로 의장대 시범, 특공무술 시범 등을 진행하는 등 군부대의존도가 매우 높았다.

1981년 개최된 ‘제10회 평택군민의 날’ 행사 개최식에 표기된 구호는 ‘제2회 평택군민의 날’ 때 10월 유신을 홍보한 구호와와는 다르게 ‘민주정의 복지국가 화합으로 건설하자’, ‘풍요하고 건강한 평택 힘 모아 이룩하자’로 당시 변화된 시대상이 반영되었다.



제6회 송탄시민의 날 1986년 / 송일초등학교 운동장(서정동)

‘송탄시민의 날’ 행사는 1981년 평택군 송탄읍이 송탄시로 분리 승격된 후 1981년 ‘제1회 송탄시민의 날’ 행사를 시작해 송탄시 8개 동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매년 개최되었다. 송탄시 승격 당시 7개 행정동은 중앙동, 서정동, 동부동, 도원동, 지산동, 송북동, 신장1동, 신장2동으로 종합운동장이 없었기 때문에 관내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송탄시민의 날’ 행사와 ‘송탄시민체육대회’를 함께 개최하였다.

송탄시민의 날 행사는 8개 동민들이 각 동의 특성을

살린 가장행렬 형식의 입장식을 시작으로 개회식, 체육대회, 시상식 순으로 진행하였다. 입장식은 시민의 날 행사 가운데 준비 기간도 길고 가장 공을 많이 들여 준비했기 때문에 입장상을 쟁취하기 위한 8개 동의 경쟁은 치열했다. 신장동은 미군부대가 주둔한 특성을 살려 주한미군 가족들도 참여해 국제도시의 이미지를 보여주었으며, 법정동인 도일동이 속한 도원동은 원균 장군의 출생지라는 점을 살려 조선시대 군사 복장을 입은 군사행렬을 선보이기도 했다.



제1회 평택시민체육대회(통합 평택시) 1995년 10월 7일 / 평택시종합운동장(합정동)

3개 시·군으로 분리되었던 평택군과 송탄시, 평택시가 1995년 하나의 도농복합 평택시로 통합되면서 첫 ‘평택시민체육대회’가 그해 10월 7일 합정동 소재 평택시종합운동장에서 21개 읍·면·동 선수단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때까지만 해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각종 행사에 동원하는 것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12,700여석의 종합운동장 관중석은 개회식에 동원된 학생들로 만석을 이뤘다.

‘평택시민의 날’과 ‘평택시민체육대회’는 한 해씩 번갈아가며 개최해오고 있는데 3개 시·군 통합 초기 시민체

육대회는 읍·면·동 선수단 입장식을 시작으로 개회식, 창공을 날아 운동장에 착륙하는 패러글라이딩 시범, 평택농악 축하공연, 각종 스포츠 경기, 어르신들을 위한 공굴리기, 노래자랑, 시상식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2000년 이후부터는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행사에 학생들을 동원할 수 없도록 정책이 강화되어 이때부터 ‘평택시민체육대회’는 순수하게 읍·면·동 선수단을 중심으로 치러졌다. **소사별**

글 · 사진 박성복
Pyeongtaek Photobank/Memory in Pyeongtaek 대표

평택문화를 반추하다

— 경기도의 눈으로 본 평택의 모습 —

황수근 문화사업부 학예사



경기도청 홈페이지 멀티미디어 자료실에는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에서 생산한 사진보도자료, 사진, 영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다시 교통, 주거환경, 경제활동, 여가활동, 문화생활, 자연생활, 교육, 주민생활정보, 문화예술, 재난관리, 문화유산, 평화협력, 경기도 상징물, 기타 등으로 분류하였다. 이 자료실에는 평택과 관련된 각종 자료가 수록되어 있어 이를 통해 평택문화를 반추할 수 있게 한다.

산업

진위면을 중심으로 오이재배가 활성화되어 농가소득에 많은 도움이 되었고 이는 슈퍼오닝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다. 현덕면 갯벌에서는 백합양식이 시도되었고 고덕면 여염리 일대에는 한뉴육우시범목장이 조성되는 등 농·어·축산이 함께 발달하였다.



백합양식장(1969.08.11)



농가소득사업 오이 재배(1979.06.15)



서탄면 답이작보리 파종 연시 대회(1974.10.15)



추곡수매(1980.11.20)



한뉴육우시범목장(1981.08.19)



평택읍 유천1리 도시계획(1969)



송탄읍기지촌 정화사업(1977.05.11)



서정리역 앞 소도시개발(1979.09.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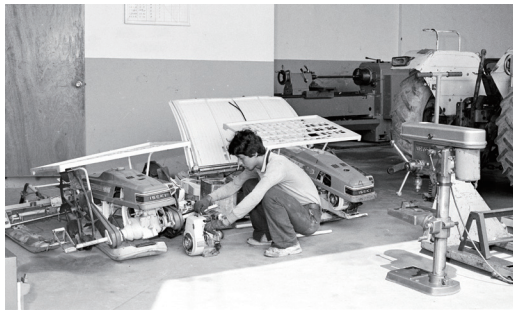
용인~평택도로 개통식(1981.12.17)

도시와 교통

오산미군부대 주둔으로 인해 송탄에는 기지촌이 조성되었고 70~80년대에 지속적으로 도시와 교통을 개선하는 사업이 이어졌다. 남부에는 유천리 도시계획 등 평택역을 중심으로 도시가 확장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송탄 미군부대 주변모습(1989.07.24)



평택군 기호농조 농업기계화단지 (1981.07.22)



평택군 민방공 훈련(1981.09.11)



KBS 팔도대항 평택(1982.07.09)



기능올림픽 선수격려 삼성, 평택(1985.08.28)



평택매일분유아쿠르트 공장(1983.04.21)

기타

현덕면 권관리 평택호변에서는 KBS 팔도대항이 열리기도 하는 등 평택에서는 다양한 행사 모습에서 당시 경기도 시선에서 평택을 만날 수 있다. **소사별**

평택을 품은 이야기

평택의 오래된 나무를 찾아서

글 강하늘 문화사업부 학예사 / 그림 연꽃 작가

마을에 모여 살던 사람들은 산과 나무를 신성시하며 제사를 지내고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빌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나무를 심었더라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나무를 하나의 생명으로 바라보고 때로는 신성한 대상으로 생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오래된 나무를 함부로 베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평택지역에도 오래된 나무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나무들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평택 지역에는 60여 개의 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되어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나무의 종류는 느티나무, 은행나무, 향나무, 회화나무, 소나무 등 다양합니다. 최고 900여 년부터 최소 100여 년의 시간을 가진 나무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가진 채 기념목^{紀念木}·신목^{神木}·당산목^{堂山木}·정자목^{亭子木} 등으로 여전히 마을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칠원동 은행나무

칠원동에는 수백 년 된 은행나무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은행나무의 잔가지는 평지에 닿아 큰 가지가 평상처럼 퍼져 있었고 그곳에서 마을의 노인들은 편편하고 커다란 가지 위에서 장기판을 얹어 놓고 장기를 두었습니다. 마을의 당산나무와 같던 은행나무는 1940년경에 한 일본인에 의해 베어졌는데, 그 이후로 마을에는 괴이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오래된 은행나무가 있는 산을 구입한 일본인 나까야마는 마을 주민들에게 품삯을 넉넉히 제시하며 은행나무를 벨 사람을 구했지만, 주민들은 어려서부터 친구처럼 만지고 아끼던 나무를 벨 수 없다며 거절했습니다. 결국 나까야마는 다른 동네에서 일꾼을 구하고 인부들을

은행나무 옆 이씨 집에 강제로 숙박시키곤 나무를 베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마을에는 끊이지 않는 이변이 발생하여 사람들은 공포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나무를 베던 인부들은 병어리가 되었고, 인부들의 밥을 내었던 이씨 집안의 장손은 시름시름 앓다가 미쳐버렸습니다. 잘라서 방치된 나무를 뿔감으로 쓴 아이들은 장님이 되었습니다. 은행나무를 베어버린 나까야마는 차츰 몰락하기 시작하더니, 해방되는 해에는 거지가 되어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후에도 변괴는 계속되어 나무 옆에 살았던 이씨는 결국 이사를 가고 그 집에 다른 입주자들이 들어왔지만 금세 비게 되어 결국 집은 폐허가 되었다고 합니다.

학현리 은행나무

안중을 학현리에 심어진 은행나무는 평택시 보호수 중 가장 오래된 나무입니다. 고려 명종 때 젊은 스님이 학의 모양을 지닌 신비로운 마을인 학현리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스님은 우연히 이 마을에 홀로 사는 과부의 집에 쉬어가게 되었습니다. 여인은 스님을 박대할 수 없어 단칸방에서 치마로 칸막이를 하고 기나긴 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젊은 과부와 하룻밤을 묵게 된 스님은 결국 욕정을 참지 못하고 치마선을 넘어 고이 잠든 여인의 몸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여인은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나 앉으며 젊은 스님을 크게 꾸짖었습니다. 그 순간 스님은 고개 숙여 깊이 사죄하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스님은 마을의 한복판에서 자신을 반성하며 이 마을에 정착하기 위하여 절을 짓는 등 온갖 고행을 하였으나 끝내 득도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스님을 불쌍히 여긴 마을 사람들은 스님이 죽은 자리에 은행나무를 심어 주었다고 합니다.



객사리 향나무

객사리 팽성읍 행정복지센터(조선시대 평택현 관아터)에는 3그루의 향나무가 있습니다. 향나무의 심재에서는 강한 향이 나는데, 이것을 불에 태우면 더 진한 향기가 나서 주로 제사를 지낼 향로로 널리 쓰였다고 합니다.

객사리에 있는 3그루의 향나무는 평택현감이 죄인에게 벌을 내릴 때 형틀로 사용하였고 평택현의 각종 제사 때에도 향로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봉남리 회화나무

진위면 봉남1리 진위향교에는 회화나무가 있습니다. 회화나무의 또 다른 이름은 선비나무인데, 회화나무를 심으면 학자나 큰 인물이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향교나 서원 등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에는 이 나무를 심어 학생들이 훌륭한 학자로 자라나기를 바랐습니다.

일제강점기가 되자 진위향교는 한동안 방치되었고, 캄캄한 저녁이 되면 향교의 회화나무가 슬피 우는 소리에 마을사람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을사람들에 의하면 광복 이후에는 회화나무가 우는소리를 한 번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동천리 은행나무

진위면 동천리에는 신비한 일이 일어나는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동천리 은행나무를 보면 다음 해 농사의 풍작과 흉작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가을이 되어 단풍이 들 때 나무 전체가 하루 이틀 사이에 노랗게 물들면 그 다음 해의 농사는 풍년이 들고, 단풍드는 일자가 한 달 정도 걸쳐서 들면 그 다음 해의 농사는 가뭄이나 천재지변으로 흉년이 든다고 합니다. **소사벌**





경동나비엔 서탄공장 앞 고인돌

평택시 소통홍보관 협조



평택의 도시개발로 인해 문화재 발굴조사가 활발해지면서 과거 평택에서 살았던 선조들의 삶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문자가 만들어지기 이전 시대에는 남겨진 흔적을 통해 당시 사람들의 삶과 생각을 알 수 있는데, 평택에서 중요한 유적과 유물의 발견으로 청동기시대 평택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

평택에서는 제사의식을 지냈을 환호, 농경의 흔적을 보여주는 불탄 쌀과 보리, 매장풍습을 알 수 있는 고인돌이 발견되었다. 세 곳의 청동기시대 유적을 평택이가 대신 탐방하였다.

용죽공원에서 만난 환호

용죽공원에서 만난 청동기시대 마을은 이 지역의 중심적인 마을로 추정된다. 특히 이곳의 환호는 청동기시대의 중요한 의례와 관련된 유적으로 인정받았으며 그 가치는 매우 높다.

환호와 주거지군이 있었던 용이동의 청동기마을은 주위를 조망하기 유리한 구릉에 위치하였다. 마을 주변으로는 큰 환호가 둘러 있어 마을을 보호해주었다. 큰 환호 안에는 90여 개의 주거지가 모여 있었고 주거지 내부에

서는 청동기시대 대표적인 민무늬토기와 석기가 발견되었다. 석기는 돌칼, 돌화살촉 등의 무기류와 반달돌칼과 같은 농업과 관련된 도구도 있었고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어망추도 발견되었다.

구릉의 가장 정상부에서 또 다른 환호가 나타났다. 이 환호는 마을 중앙의 제사나 의례와 관련된 시설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였다. 제사를 지낸 환호의 등장은 대규모 고인돌과 마찬가지로 제사장 등 권력자의 등장을 말해준다.



- ▲ 환호로 달려가는 평택이
- ◀ 환호 앞 평택이
- ▼ 발굴조사를 마친 환호



소사동 역사유적근린공원에서 만난 농경

소사동 역사근린공원에서 만난 불탄 흔적의 쌀과 보리는 이 지역의 농경문화를 보여줄 뿐 아니라 생김새에 따라 벼의 종을 추정할 수 있고, 나아가 벼농사의 기원과 전래과정 에 대한 연구의 기초자료가 되었다.

소사동의 구릉에는 주거지군이 모여 있는 청동기시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에서는 청동기시대 전기~후기까지의 다양한 형태를 가진 주거지와 다양한 유물이 나와

주변 유적과의 비교연구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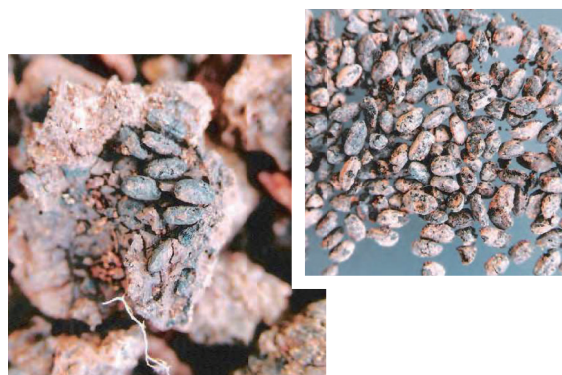
구릉에 위치한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특징 중 하나는 활발한 농경이다. 구릉에 위치한 주거지는 방어에 유리했을 뿐 아니라 자연으로부터의 피해가 적어 농경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주었다. 구릉에 위치했던 소사동 주거지 내부에서는 이처럼 농경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갈판과 갈돌 등의 유물과 불탄 흔적이 있는 쌀과 보리가 나왔다.



평택 소사동유적을 소개하는 평택이



주거지가 궁금한 평택이



평택 소사동유적 출토 탄화미(쌀)



평택 소사동유적 출토유물



개석식 고인돌을 설명하는 평택이



고인돌 내부를 살펴보는 평택이



평택 수월암리 고인돌 출토유물

경동나비엔 서탄공장 앞에서 만난 고인돌

경동나비엔 서탄공장 정문에서 만난 고인돌군은 당시 평택에 살았던 청동기시대 사람들의 매장문화를 알 수 있게 해 준다. 고인돌 내부에서 화장 후의 부산물로 보이는 목탄과 인골 조각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화장 풍습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청동기시대에는 고인돌, 돌무지무덤, 돌널무덤 등 여러 가지 무덤형태가 등장한다. 그 중 서탄면 경동나비엔 서

탄공장 부지에는 탁자식 고인돌과 개석식 고인돌이 발견되었다. 구릉사면 정상부에 위치해있던 수월암리 고인돌 군에서는 24기의 고인돌이 확인되었고 이 중에서 중요한 고인돌 7기를 선택하여 사람들이 오가며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인돌을 이전시켰다. 고인돌의 덮개돌의 규모는 대형~소형까지 다양하며 표면을 다듬어 거북이등 모양을 한 덮개돌도 존재한다. 무덤방 내부에는 석검, 화살촉, 반달돌칼, 방추차 등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소사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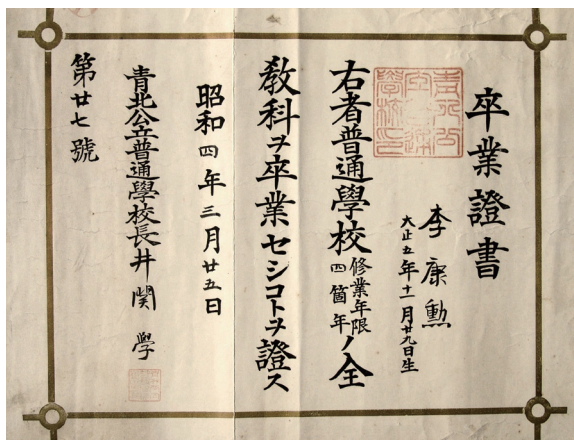
나눔과 채움의 행복드림

청북초등학교

허정훈 청북초등학교 교사

청북초등학교의 시작

청북지역에서는 일찍이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아 지역 유지들이 야학 운동이나 강습소 등을 세워 교육하였고, 각종 사회단체를 조직 결성하여 지역 발전을 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청북면장을 지낸 신찬우에 의해 1925년 지역 유지의 도움으로 공립보통학교를 설립, 기성회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경기도와 교섭을 하고 민간의 동의를 얻어 평택 관내의 초등학교 중에서 다섯 번째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현재의 청북초등학교가 설립되었다. 그리하여 1926년 9월 13일에 '청북공립보통학교'로 설립 인가를 받아 3학급 148명을(남:139명, 여:9명) 모집하게 되었다. 당시에 청북공립보통학교를 설립, 건축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은 경기도의 도움도 있었지만, 지역 유지로부터 토지를 기부받았으며 이 외에도 모금 운동을 통하여 재원을 마련하였다.



청북공립보통학교 졸업증서(1929.3.25)



청북공립보통학교 수업모습(1938)

일제강점기의 시련과 극복

일제강점기에는 오늘날과 같은 현대식의 학교가 없어 강습소를 운영하거나 저녁에 서당이나 야학에서 공부를 하였다. 일제강점기의 교육환경과 사회 현실은 매우 어려운 시기였고, 국민들은 모두가 독립을 갈구하려는 민족 정신에 불탔으며, 일본을 배척하려는 국민들의 마음은 오로지 배움으로 일본을 물리쳐 독립을 희망했던 시기였다고 사료된다.

1926년 9월에 4년제의 학제로 3학급의 설립 인가를 받고 일제강점기에 개교한 청북초등학교는 초대 교장도 일본인 정관학(井關學)으로 임용이 되었고, 선생님들도 일부는 일본사람으로 하여 교육을 하게 되었다. 교육제

도 역시 일본식의 교육이었고, 언어도 일본어를 하도록 하는가 하면 이름도 일본 이름으로 바꾸는 일본식 개명 까지도 강요받았다. 이처럼 모든 여건과 제도는 일제식의 교육이었고, 환경과 시설 등은 열악하고 어려운 시기였다. 그 후 1936년에는 6년제로 학제가 승격, 개편 되었다. 1945년 해방될 때까지 일제강점기 19년을 보내면서 일본인의 교장 밑에서 일본식 교육을 받았다. 그러는 동안 일본인 교장은 6명이나 연이었다. 이들은 우리 민족의 교육 혼을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1945년 해방과 동시에 한인 초대 우기종 교장의 부임으로 비로소 일제식 교육은 그 막을 내리게 되었다.



전소된 청북교 | 발화원인은 청북교 넘엇동리에서는 십삼세가량되는 아이가 나무하러왔다가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바람막히는 학교 근처에 와서 불을 놓고 쪼이다가 몰아치는 바람에 학교송판벽으로 옮겨 붙은 것인데 마른 송벽판이라 걸잡을 수 없이 불꽃이 바람과 함께 맹렬히 불어 올라서 그리전소시켜버린것이고 손해는 약 일만여원에 달한다고 한다. (동아일보 1934.3.13)

교실의 전소(全燒)와 증·개축

1933년 2월 18일 오전 9시 30분경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하여 교실이 전소되었다. 따라서 당시의 모든 학적 서류와 기록이 없어져 학교 역사를 찾을 수 없게 되었다. 그 후 교육청과 지역의 주민은 혼연일체가 되어 전소된 교실을 다시 증축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동년 6월 28일에 7개 교실을 신축하였다.

1950년 민족의 비극인 6·25 사변이 일어나 또 한차례의 시련을 겪어야 했다. 그 후 청북학교는 미군 중대 본부의 지휘 통제소가 되었고, 심지어 뒷산은 박격포의 발포 전진기지로 사용되었다.

그 후 1972년도에는 과거의 건물을 철근콘크리트 현대식 건물로 1층이 증·개축되었으며, 1987년에는 다시 2층 5개의 교실이 증축되었다. 2021년 현재 본관 2층, 후관 3층 건물과 관사 및 야외 우레탄 체육시설, 골프연습장, 체육관 등을 통해 방과후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청북초등학교

청북초등학교의 현재와 그 미래

2021학년도 청북초등학교(교장 김혜경)는 미래사회를 이끄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나눔과 채움의 행복 드림 청북 교육’의 비전을 세우고, ‘새롭게 생각하며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 ‘바른 생각·건강한 신체로 도전을 즐기는 사람’, ‘문화예술을 즐기며 꿈을 키우는 사람’, ‘자신을 사랑하며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이라는 교육목표로 학생이 주인공이 되어 자신의 미래는 스스로 설계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의 급변한 교육환경에 대응하고 미래사회에 대처하는 블렌디드 러닝(온·오프라인 결합) 미래 교육체제 시스템도 구축, 지역사회(마을)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운영, 학생 주도형 프로젝트 프로그램 등의 운영을 통해 미래사회를 준비하도록 도와주고 있다.

시련과 극복의 역사 중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청북초등학교의 발전은 계속될 것이다. **소사별**



체육대회(2019)



체육관 개관식(2021)

둔포천을 경계로 왼쪽이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이고
오른쪽이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이다.

여기는 평택이다

최치선 평택학연구소 상임위원





경기도와 충청남도, 평택(우)과 아산(좌)을 잇는 노성교



노성리는 평택시 평성읍 최남단 들판에 자리 잡은 마을이다.
 산과 구릉이 없는 너른 들판과 하천뿐이다.
 노성리는 둔포천과 군계천을 중심으로 아산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노성교만 건너면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다.
 옛날에는 둔포천으로는 상선과 고깃배가 드나들었다.
 이곳은 신성포가 있던 포구마을이었다.
 상선들은 소금과 새우젓, 어물을 싣고 와서 신성포와 둔포장에서 거래했다.



노성1리 신성리와 둔포읍내 전경

300여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노성1리 신성리는
아래뜸과 윗뜸으로 나뉜다.



노성1리 입구

근대이전 노성리는 충청도 평택현 남면지역이었다. 1914년 일제가 행정구역을 개편하면서
노중리와 신성리를 통합하여 노성리가 됐고 경기도 진위군으로 편입되었다. **소사별**

들판 가운데 자리한 노성2리는
중리와 느새 두 개의 마을이 있다.



노성2리 중리에서 본 전경, 멀리 노성1리 신성리와 둔포



확을 사용한 노성2리 다목적회관 표지석

재봉틀로 그리는 세상

Soingart

소 / 잉 / 아 / 트

천인안 작가



“재봉틀로 그림을 그려보면 어떠세요?”라는 말을 듣고 정말 재봉틀로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재봉틀로 작품을 만들어 무작정 유명한 재봉틀 회사에 협찬을 부탁했습니다. 놀랍게도 정말 재봉틀을 협찬을 받게 되었고 그 이후 직선이 아닌 곡선으로도 캔버스에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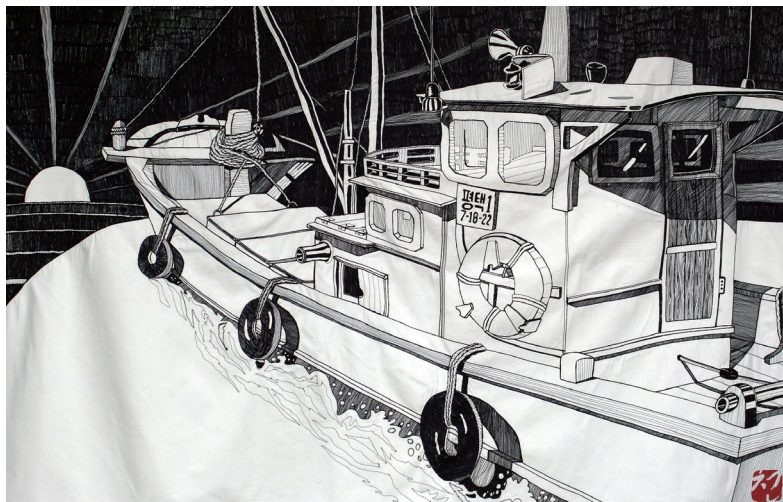
이제는 선을 면으로 표현하고 싶어졌습니다. 재봉틀로도 채색과 음영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최초로 만들어냈습니다. 작품과정을 통해 실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것이 예술의 한 장르가 될 수 있다 느끼게 되었습니다.

항구(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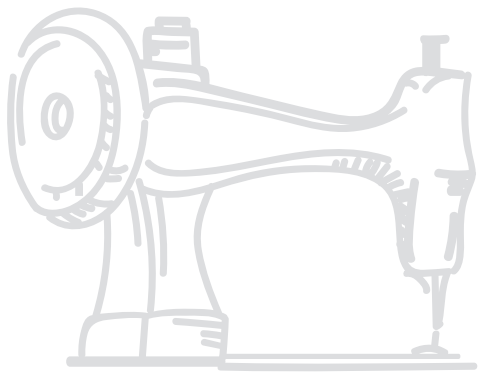
2020년 4월 SBS '세상에 이런일이'에 출현한 적이 있습니다. 촬영 도중 석천항에 간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좋아하는 바다와 어선을 마음껏 보면서 항구의 향취를 표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소잉아트는 가슴 설레게 하는 요소가 참 많습니다. 재봉틀로 그린 그림은 빛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아 어디든 둘 수 있을 뿐 아니라 은은한 조명 아래에선 보면 볼수록 마음이 편안해지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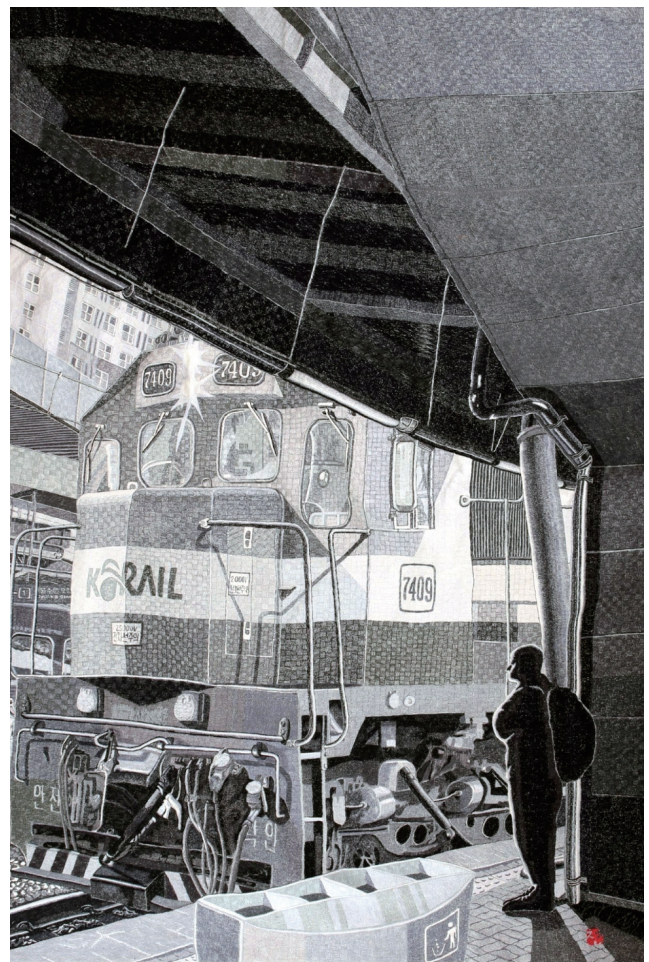
소잉아트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강의와 전시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소사벌을 통해 작품을 소개합니다.



출항(2018) | 초창기 재봉틀 그림을 시작하면서
원대한 포부와 희망을 안고 출발하
는 모습을 평택항에서 출발하는 배
의 모습으로 표현하였습니다.



평택역(2019) | 가끔씩 서울에 특강을 갑니다. 어느 날 아침 서울
을 가기 위해 평택역에서 기다리다가 한 명의 미
군이 내 앞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시는 미군들과 함께 공존하는 도시라는 생각
으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해바라기(2020) | 재봉틀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위해 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모티브는 반 고흐의 해바라기를 오마주(hommage) 해 컬러로 해바라기를 표현하였습니다.



백남준 생가(2021) |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신 백남준 작가를 본받고자 생가를 방문한 후에 재봉틀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현재 미술 장르에 재봉틀 그림이라는 장르는 없습니다. 백남준 작가처럼 새로운 장르를 인정받고자 터득한 모든 기술을 담아 작품을 만들었고, 대한민국 미술대전 서양화 부문에서 입선하였습니다. **소사벌**



아버지의 문화생활

정용훈 평택시 박물관팀장



미군부대에서 정용훈 팀장과 아버지(1972)

아버지는 올해 팔순을 맞으셨습니다. 어머니를 만나시기 전, 아버님은 경상도 진주에서 먼 친척을 찾아 평성을 두정리에 오셔서 평택에 정착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를 만나 송탄 미군부대에 취직하시어 그곳에서 정년 퇴직을 하셨지요.

아버님은 송탄 조기축구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축구를 무척이나 좋아하십니다. 매일 아침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시고 출근하셨습니다. 발목이 부러지고, 팔이 부러지고 김스를 하시고...어머님은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많이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주말이면 조기축구회 주관 축구대회를 위해 매주 집에 없으셨습니다. 가끔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학교 운동장을 나갔습니다. 운동장 스탠드 한쪽에 마련된 갖가지 음식을 먹으며 저는 운동장 모래 놀이를 하곤 했지요. 이것이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 최고의 문화생활입니다.

아버님은 운동을 좋아하셨습니다. 마당 한가운데, 양
동이에 시멘트를 부어 만든 역기를 들고 운동하시던 아버
지. 운동 중에 당신의 갑빠(가슴 근육)를 만져보라며, 너
도 운동을 해야 한다고 자랑을 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한번은 어머니가 펄펄 울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님
이 트럼프(카드 놀이)에 빠지신 것입니다. 많은 돈을 잃으
셨던 모양입니다. 집안을 탕진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한
달 치 월급은 족히 되는 돈을 잃으신 모양입니다. 이것이
제가 기억하는 최고 좋지 않은 아버지의 문화생활입니다.

그러다, 퇴직을 하시고, 부락산을 자주 다니셨습니다.
부락산에는 아버님 연배의 많은 친구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과 담소를 나누시며 운동을 자주 하십니다.



생활체육경기도대회(1990년대)



송탄 조기축구회(1990년대)



이충문화체육센터와 축구장

송탄에 이충문화체육센터가 생긴 이후에 아버님은 무척이나 반가워하셨습니다. 젊은 시절, 먼지가 펄펄나는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시던 생각에 '세상 참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셨지요.

언젠가는 부모님을 모시고 소풍정원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오랜기간 평택에 사신 부모님은 소풍정원이 그 전에 어떤 모습인지 알고 계셨지요. 세상이 '천지개벽'을 하는구나. 라며 무척 좋아하셨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아버님의 젊은 시절, 어린 가족을 데리고 가까운 해수욕장에 덜컥거리는 버스를 타고 가, 힘들게 텐트를 치고 해수욕장 모래밭 위에서 불을 피워 밥을 해먹으며 휴가를 보냈던 기억을 떠올리셨겠지요. 세상의 변화를 실감하시면서요.

한번은 제 동생과 함께 멋진 카페에 모시고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스크림은 얹은 커피와 조각 케이크를 주문해 드렸습니다. 외부에서 귀한 손님이 오실 때만 다니셨던 반지하 쾌쾌한 다방에서 쌍화차를 마시던 생각에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가 오래 살아서 이런 호사를

누리는구나.

얼마 전에는 어렵게 유명 가수의 콘서트를 예매해 드려 많이 좋아하시던 일도 있었습니다. 트로트 열풍이 한참일 때 방송국에서 진행하는 공연장에 모시고 간 적도 있지요. 돌아오는 자동차 안에서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부모님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지금 부모님은 고덕에 살고 계십니다. 그곳을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하십니다. 같은 연배의 경로당 어르신들과 매일 아침, 고덕에 여기저기 새로 생긴 공원을 함께 다니십니다. 신도시의 매력을 한껏 즐기고 계시지요.

평택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대로 평택은 지금 '천지개벽'을 하고 있지요. 경제적인 성장만으로 도시의 품격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훌륭하고 규모 있는 문화시설의 존재여부로 품격 있는 도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고덕 중앙공원(함박산 공원)에 문화 복합단지를 조성합니다. 중앙도서관, (가칭)평화예술의 전당, 평택박물관, 어린이 창의체험관. 이런 문화시설을 통해 많은 시민이

품격 있는 문화생활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담고 있다는 책을 통해 인류의 지성을 탐구하는 장소로서의 도서관. 품격있는 문화예술 공연을 향유하고 만끽하는 장소로서의 예술의 전당. 고고학적, 역사적 유물과 자료를 수집하고 보관, 전시, 연구, 교육하는 장소로서의 박물관, 미래 세대들에게 창의력을 키우고 마음껏 꿈꾸게 하는 공간으로서의 어린이 창의체험관. 이 네 가지 시설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동하고 연대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평택은 분명 발전할 것입니다. 문화시설은 형식(그릇)입니다. 그 안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 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국어사전에 문화는 ‘행동 양

식이나, 생활 양식의 과정, 그 과정에서 이룩해 낸 물질적, 정신적 소득을 통틀어 이르는 말’ 이라고 합니다. 문화시설은 이 문화를 담는 그릇일 것입니다.

이 땅, 평택에서 살아온 모든 사람, 살아가고 있는, 앞으로 살아갈 우리 미래세대들의 물질적, 정신적 풍요로움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문화시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도시는 문명은 담는 그릇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위대한 삶을 담는 그릇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의 노력과 힘이 필요합니다. **소사별**



평택시 평화예술의 전당 건립 기본설계 당선작 조감도

평택박물관 건립을 위한 제언

성주현 평택박물관연구소장



평택박물관연구소에서 평택시사신문에 연재한 「박물관을 가다」

‘도시가 교육 한다’는 말이 있다. 이는 최근 들어 많은 도시들이 학습·교육·연구·혁신 등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통해 지역 살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핵심적인 것이 사회교육에 대한 투자이다. 바로 ‘평생학습을 통한 교육’이다.

도시들이 여기에 주안점을 두는 이유는 사회 전 영역에 걸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학습의 본질이라는 생각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요한 것은 학습이 개인의 성공뿐만 아니라 국가, 지역, 도시 경제의 비교 우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라는 점이다. 도시 교육의 중요한 역할은 사회교육기관에 대한 집중 투자이다. 이러한 사회교육기관은 박물관, 도서관, 문화센터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뿐만 아니라 건전한 사회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더욱이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는 무엇보다도 박물관의 역할과 기능이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아직도 박물관하면 흔히 볼 것 없고, 재미도 없는 곳으로 인식되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그만큼 박물관이 아직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뿐만 아니라 박물관은 과거의 역사만을 보여주는 곳이란 인식이 컸기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박물관은 과거와 현재를 전시하는 곳이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가는 공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박물관은 매력적인 곳이 될 수 있다. 강원도 영월군은 박물관의 고장이라고 한다. 현재 영월군에는 다양한 박물관이 20여 개가 있지만 앞으로 박물관을 더 유치한다고 한다.

박물관은 지역의 역사와 밀접하다. 지역의 역사는 그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기반으로 시대적 상황과 주민 생활 방식에 따라 날로 새롭게 바뀌고 있다. 때문에 지역의 역사는 항상 살아 있으며 이 살아있는 역사를 어떻게 유지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박물관이다. 박물관은 단순한 과거의 역사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의 삶을 제시해준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역의 정체성을 일깨우고 사회의 발전, 나아가 주민의 '문화 향유 권리'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평택에 박물관이 존재하는가'이다. 수도권에서 박물관이 없는 도시하면 이제는 '평택'이 우선적으로 꼽히고 있다. 최근 교육과정에서 초등학교에서



강원도 영월군의 다양한 박물관

는 ‘우리 고장 평택’을 교과목에서 다루고 있지만, 불행하게도 평택은 지역의 역사를 한 곳에서 볼만한 곳이 없다는 점이다. 지역의 역사를 배우는데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평택의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박물관이다.

평택도 이제는 인구 80만을 내다보고 있다. 그동안 중소도시라는 이미지에서 점차 대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최근 들어 미군 부대의 정착과 삼성의 유치 등으로 평택이라는 도시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고 해양 시대를 이끌어갈 시점에서 평택에 제대로 된 박물관 하나 없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최선을 다해 박물관 건립을 추고 있지만 더 늦기 전에 평택에 종합박물관을 비롯하여 다양한 지역성을 드러낼 수 있는 소규모의 이른바 테마 박물관이 추가로 건립되어 평택시민의 문화적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미래를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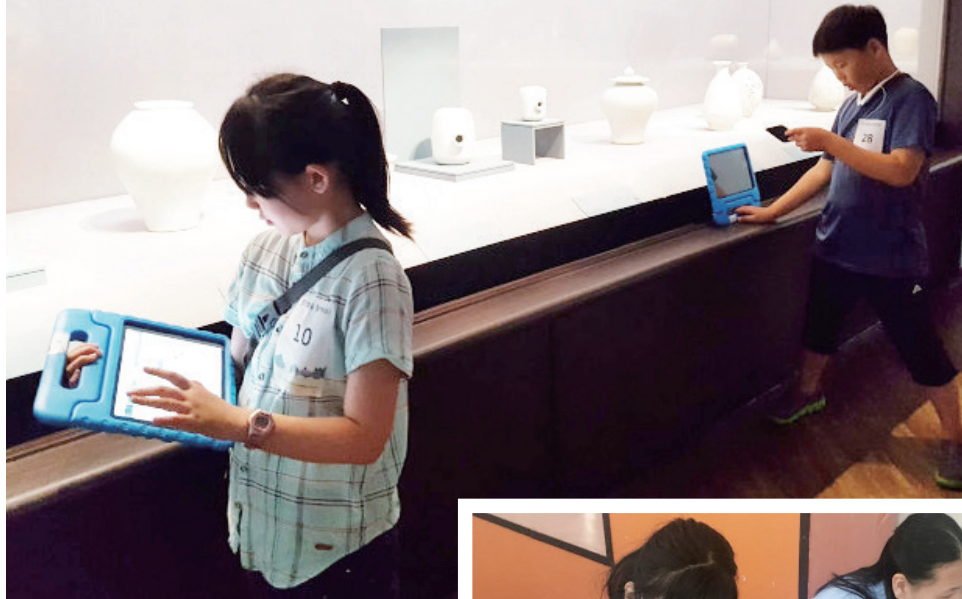
그동안 박물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이 가지는 기본적인 개념은 “인간 환

경의 물질적인 증거를 수집·보존·연구하여 전시하는 행위를 통해 사회의 발전에 봉사할 수 있도록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연구와 교육, 과학에 이바지하는 비영리적이고 항구적인 시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박물관을 그 지역의 역사성, 정체성을 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제 박물관은 보고 전시하는 ‘문화시설’에서 평생교육 내지 시민교육을 지향하는 ‘교육시설’로 탈바꿈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박물관은 많은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박물관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는 평생교육의 마당이다. 특히 도시의 역사박물관은 어린이에서 노인까지, 또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시민에서부터 다른 지방이나 더 멀리 해외에서 방문한 여행자들도 찾는 곳이다. 찾는 사람도 매우 다양하며 그 지역이나 도시의 정신적, 물질적 역사와 유산을 고스란히 확인하고 학습할 수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평생교육 나아가 시민교육의 자원으로도 더 없이 훌륭한 교육의 장인 것이다.



국립경주박물관 성인 교육프로그램



◀ 경기도박물관 여름방학
특별체험 프로그램
▼ 경기도박물관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특히 지역의 박물관은 시민의 삶과 매우 밀접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공간이다. 도시는 인간이 자연과 환경에 적응하면서 만들어진 문화적 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의 생성·변화·발전·재생성·소멸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적인 유기체인 것이다. 도시가 살아있듯이 박물관도 살아있는 곳이다. 도시가 시민과 분절할 수 없는 것이라면 박물관 역시 시민생활의 질을 높여주는 평생교육의 공간인 것이다. 즉 박물관은 민주시민, 조직시민, 국제시민으로서의 자질교육 등 일상적 학교교육의 범주를 극복하고 시민 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책무가 있다.

평택이라는 도시에 박물관이 건립된다면 어떤 목표를 가져야 할까? 기본적인 목표는 유서 깊은 평택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정리해 보여줌으로써 평택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심화하는 한편 평택시민 및 평택을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택의 역사와 문화를 느끼고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박물관은 그냥 보는 곳이 아니라 시민이 참여하는 공간이다. 단순히 옛것을 둘러보기 위해 방문하는 장소가 아니라 평택이라는 미래의 브랜드 가치를 창출하는 곳이다. 평택시민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나야 한다. 모두가 친숙하고 자주 방문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적, 교육적 공간이 바로 박물관인 것이다. 이제는 평택시민의 삶과 생활의 질을 향상하고, 문화적 복지를 누릴 수 있는 박물관이 필요한 시점이다. **소사별**



개인의 기록이자 시대의 기록인 『대곡일기』

개인의 기록, 시대의 기록 :

『대곡일기』에 담긴 농촌 의료의 풍경

박승만

역사학 박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사회 의학과 연구강사

1961년 6월 15일 늦은 밤, 한 농부는 일기장을 펴고 이렇게 썼다. “오후부터 잘 놀던 어린 것이 보채고 울고 하여 웬일인지 몹시 신음하여 사람의 간장을 태우고 있으니 말이나 해야 아픈 곳을 알지 몹시 괴로운 모양으로 보채니 큰일이다” ‘어린 것’은 새로 태어난 갓난쟁이 둘째였다. 갓 백일이 지난 아이가 끔찍 앓는 모습 앞에서 부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러나 별다른 수는 없었다. 그는 이렇게 탄식했다. “병원이나 있어야 급히 가보지”

이 글을 남긴 농부는 1929년 고령 신씨(高靈 申氏) 집성촌인 오늘날의 평택시 청북읍 고잔리 대곡마을에서 태어나, 해방과 한국전쟁, 농촌 근대화 등을 오롯이 겪은 신권식(申權植, 1929 -) 였다. 정식으로



대곡일기 저자 신권식 옹

학교에 다닌 기간은 그리 길지 않지만 어려서는 한문을 배우고 나이가 들어서는 여러 신문과 책을 탐독하는 등 상당한 학구열과 학식을 갖추었고, 이를 바탕으로 1973년에는 고잔리의 이장을 맡고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고령 신씨 대종회의 부회장과 『평택신문』 칼럼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신권식 옹의 기록은 꾸준하다. 일기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에 시작되어, 전시 기록의 압수와 함께 잠시 중단되었다가, 결혼식을 올린 1956년부터 다시 시작되었다. 서울살이와 한국전쟁 참전으로 잠시 고향을 떠났던 시절을 정리하고 환향한 이듬해였다. “뜻 없는 세월이 여류(如流)하는 동안 우리의 후면에 남는 것은 역사의 기록”이라는 문장에서 보이듯 일기에 대한 그의 마음가짐

은 어떤 신념에 가깝다. 그러한 덕분인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는 매일 일기를 남겼고, 자신이 겪은 거의 모든 일을 꼼꼼하게 기록하였다.

꾸준하고 꼼꼼한 기록 속에는 개인과 시대의 모습이 오롯이 담겨있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당대 농촌 의료의 현실이다. 『대곡일기』에는 병에 대한 기록이 가득하다. 병이 나면 그저 참거나,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민간요법을 이용하거나, 또는 많은 돈을 주고 무리해서라도 의사를 찾았던 다른 농민과 달리, 장터에서 직접 약을 사와 자신과 주변의 병을 고치는 다소 독특한 길을 택하였던 덕분이다.

“병원이나 있어야 급히 가보지” 신권식 옹의 절박한 탄식에서도 드러나듯, 의사를 보는 일은 쉽지 않았다. 의사

는 드물고 멀었으며, 그만큼이나 많은 돈을 내야 했다. 당시
신권식 옹이 살던 청북에서 의료인은 손으로 꼽을 정도였다.
1960년대와 1970년대 내내, 의사나 치과의사, 한의사는 모
두 셋을 넘지 않았다. 청북의 중심지 신포에서 의원을 운영
하며 왕진을 다니던 한지의사 하나와 약종상 하나를 제외하
면, 면허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한의사와 장돌뱅이 정도가
의료인 엇비슷한 이들의 전부였다.

의료인의 부족만이 문제는 아니었다. 의료인은 드물뿐더
러, 멀고 비싼 존재이기도 했다. 신권식 옹이 살던 대곡마을
에서 장돌뱅이가 있는 안중장과 발안장에 가려면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을 걸어야 했다. 도로 사정은 좋지 않았다. 길
대부분은 포장되지 않은 자갈길이었다. 의사와 약종상이 있
는 신포가 그나마 가까운 편이었지만, 역시 걸어서 한 시간
거리였다. 의료비 부담은 병원 이용을 가로막는 또 다른 난

• **한지의사** : 일정한 지역 안에서만 개업
하도록 허가한 의사이다. 무의촌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한 보건 정책의 하나로,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경기문화재단에서 편집·발간한
『평택 일기로 본 농촌생활사』 1~3권

평택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 기증·기탁식

2021. 5. 4.(화) 13:30 | 평택시



평택박물관 건립을 위한 유물 기증기탁식(왼쪽 두번째가 신권식 옹)

관이었다. 신권식 옹은 이렇게 썼다. “오늘 신포 병원에 가기로 작정했으나 또 못 갔다. …… 돈을 지나치게 생각하다 보니 금일까지 병원에 한 번 못 가고 나의 병만 깊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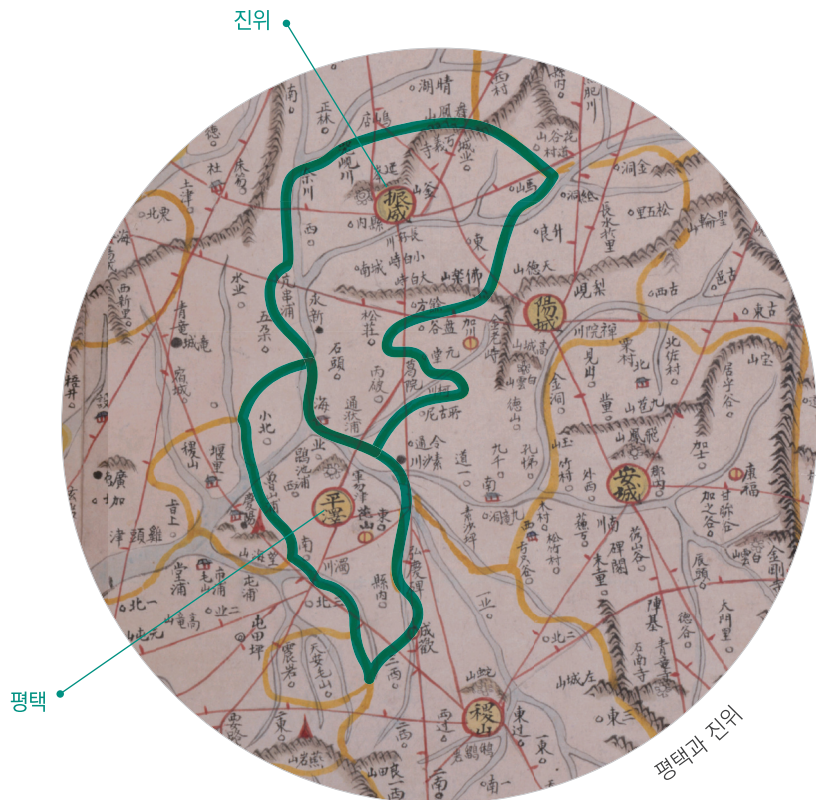
이러한 상황에서 마을의 지식인이었던 그는 가정용 의학 서적을 길잡이 삼아 자신과 이웃의 병을 돌보았다. 물론 대가는 없었다. ‘밥 한 끼 드시고 가세요’ ‘아니 그러하지 마세요’ 오고 가는 권유와 거절 속에 차려진 밥상과 술상이 그가 받은 보상의 전부였다. 주사를 놓는 일도, 상처를 꿰매주는 일도, 그리 가깝지 않은 거리를 오고 가는 일도 모두 대가 없이 이루어졌다. 신권식 옹은 마을 사람들이 아플 때마다 가장 먼저 찾는 존재였고, 그러하기

에 그의 일기에는 온 마을 사람의 아픔이 모두 담길 수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대곡일기』는 개인의 기록인 동시에 시대의 기록이다. 어떤 이들은 묻는다. 소위 세상을 바꾼다는 이름 높은 사람이 아닌, 평범한 농군의 일기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그들의 물음처럼 『대곡일기』에는 대통령도, 군인도, 정치인도 등장하지 않는다. 그저 여느 농촌에서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 기록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대곡일기』는 그러하기에 소중하다. 신권식 옹이 보여주는 필부필부(匹夫匹婦)의 삶이야말로 묵묵히 세상을 살아나가는, 역사의 진정한 주역이기 때문이다. **소사벌**

조선시대 평택의 인구와 토지

이민호수 평택대학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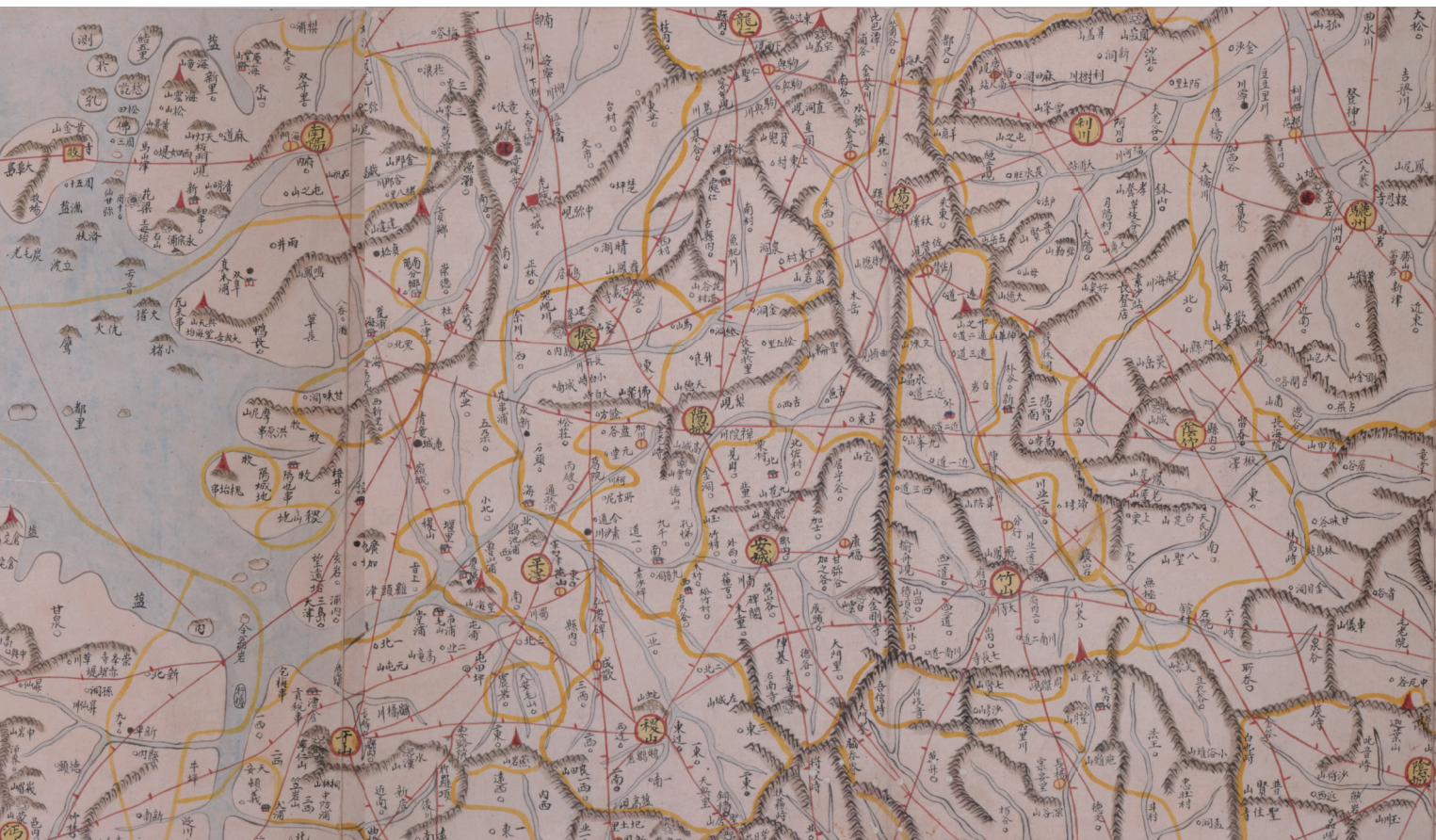


조선시대 평택의 토지와 호구 변화

조선시대 지역의 경제적 기반은 단연 인구와 토지였다. 조선은 호구(戶口)와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는 조庸조(租庸調) 체제를 기반으로 세법을 운용했기에 인구와 토지의 규모는 곧 국가재정과 지역경제의 규모를 결정지었다. 산업구조에서도 농업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였던 만큼 농사지를 땅을 꾸준히 개간하고, 노동력을 제공할 구성원을 늘리는 문제는 개인에게나 국가에게나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이 글에서는 조선시대 평택시의 경제 규모를 인구와 토지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평택시는 일제강점기와 대한민국을 거치며 주변의 여러 행정구역이





동여도(19세기)에서 평택과 그 주변

통합되어 만들어진 도시이다. 따라서 조선시대 평택시의 행정구역을 세밀하게 구분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다. 대략을 구분한다면 현재의 행정구역에는 경기의 진위현과 충청도의 평택현이 자리하고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지방을 부(府)-목(牧)-군(郡)-현(縣) 등으로 읍격을 구분하였는데, 두 지역은 모두 가장 낮은 읍격인 현(縣)이었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중앙정부의 큰 관심을 받던 지역은 아니었던 것이다. 읍격만큼이나 인구와 토지의 규모도 상대적으로 보잘것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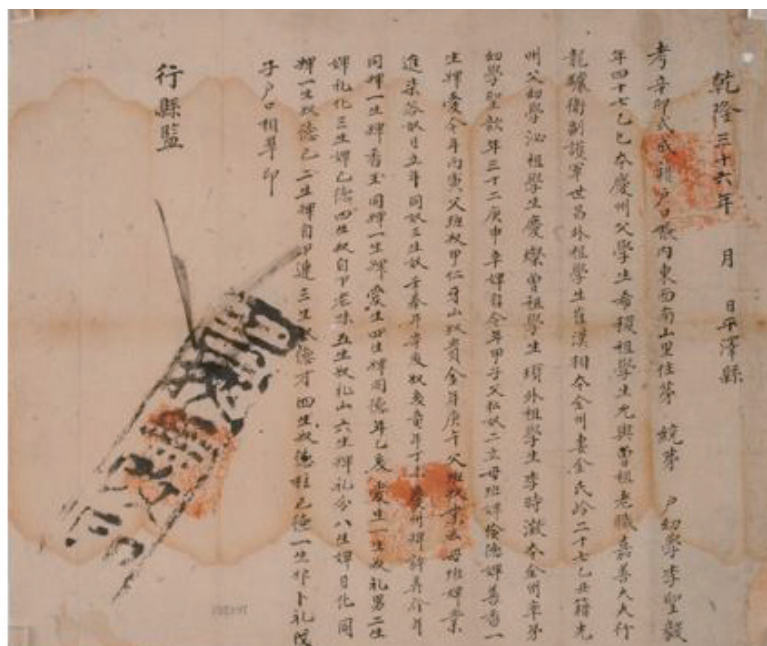
본격적으로 인구와 토지를 소개하기 전에 몇 가지 설명

해두어야 할 점이 있다. 조선시대의 인구는 일반적으로 당대의 호구(戶口) 통계를 통해 추론한다. 현대 용어로 쉽게 설명하면 호(戶)는 가구, 구(口)는 인구와 유사한 개념이다. 다만, 조선시대에는 호구(戶口)에 전국의 모든 가구와 인구를 포함하지 않았다. 조선왕조는 세금이나 군역 차출과 같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호구를 조사하였기 때문에 해당 업무 필요한 가구와 인원만을 통계하였다. 따라서 조선시대 호구(戶口) 통계는 실제 가구수나 인구수와는 차이가 있다. 다만, 호구수는 특정 고을의 가구와 인구 규모를 다른 지역과 상대적으로 비교하거나, 고을의

인구 증가 속도를 추정하는 데에 유효한 자료이다. 또한 정확한 인구와 가구수는 아니더라도 대략의 규모를 짐작하는 데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토지 결수도 마찬가지이다. 정부는 토지세 부과에 필요한 토지를 최대한 파악하면서도 고을에서 숨겨놓은 토지, 이른바 은결(隱結)을 세세히 들춰내진 않았다. 각 고을마다 필요한 재정을 은결(隱結)을 통해 확보하는 사례가 빈번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 결수도 전체적인 경작지의 규모와 변화, 다른 군현과의 비교에는 유용하다.

우선 조선 전기 세종이 재위하던 기간에 두 현의 인구와 토지는 다음과 같았다.

구분	논(결)	밭(결)	합계(결)	호(戶)	구(口)
진위현	1,420.5	1,420.5	2,841	221	535
평택현	1,340	894	2,234	179	704



평택현 이성의 준호구

진위현에는 논 1,420결과 밭 1,420결을 합친 총 2,840결의 농지가 소재하였고, 호수(戶數)는 221호, 구수(口數)는 535구에 불과하였다. 조선 시대 구수(口數)가 현대의 인구 개념과 차이는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공동체를 유지하기에 매우 적은 수였던 것은 분명하다. 경기 지역의 다른 군현과 비교하면 농지 면적은 당시 41개 군현 가운데 27번째였고, 구수(口數)는 33번째였다. 즉, 구수가 진위보다 적은 군현은 경기도 8곳 밖에 없었다. 평택현에는 논 1,340결과 밭 894결을 합친 총 2,234결의 농지가 소재하였고, 호수는 179호에 구수는 704구였다. 전반적으로 진위현보다도 작은 고을인 셈이다. 충청

도 내에서 비교하면 55개 군현 중에 농지는 44번째, 구수는 46번째에 해당하였다. 충청도에서 대읍(大邑)이었던 충주는 농지가 2만결에 육박했고, 공주의 구수가 1만을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두 군현의 규모가 얼마나 작았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두 군현은 인구나 농지가 적었을 뿐 아니라 특산물에서도 보잘것없었다. 진위현은 곡물과 삼베 외에는 별다른 특산물이 없었으며, 단지 약재로 황금(黃芩)이 생산될 뿐이었고, 평택현은 공물로 족제비털(黃毛)만을 납부하였다. 두 고을이 전반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상당히 취약한 곳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은 이후에 조선은 경작지가 대부분 황폐해지고,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며 인구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17세기 초반 평택시 지역의 인구나 토지도 큰 폭으로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를 고증할 자료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후에 조선은 정부의 강력한 복구 정책과 농민들의 노력에 힘입어 토지와 인구 규모를 빠르게 회복해 나갔다. 다음 표는 전쟁의 피해를 극복한 17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평택시의 토지와 인구 규모의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문헌	군현	면적(㎢)	결수(결)	수전(결)	한전(결)	호(戶)	인구(명)	남자(명)	여자(명)
여지서 (17세기 후반)	진위	153.49	-	-	-	2,703	11,905	6,218	5,687
	평택	39.8	-	-	-	1,059	4,794	2,470	2,324
여지도서 (18세기 중반)	진위	153.49	2,288.76	1,134.49	1,154.27	1,987	4,814	2,518	2,296
	평택	39.8	1,779.31	1,140.03	639.28	1,395	5,742	2,838	2,904
호구총수 (18세기 후반)	진위	153.49	-	-	-	2,137	7,093	3,484	3,609
	평택	39.8	-	-	-	1,524	5,860	2,884	2,976
대동지지 (19세기 중반)	진위	153.49	2,493	-	-	-	-	-	-
	평택	39.8	1,779	1,140	639	-	-	-	-
각부군결호총록 (1901년)	진위	153.49	1,680.03	-	-	-	-	-	-
	평택	39.8	436.52	-	-	-	-	-	-
민적통계표 (1910년)	진위	153.49	-	-	-	3,756	16,548	8,777	7,771
	평택	39.8	-	-	-	1,260	5,476	2,797	2,679

17세기 후반 두 지역 모두 조선 전기에 비해 호구수는 크게 증가했지만, 농지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시기 조선의 인구는 자연적인 요인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두 지역의 인구 증가도 특이한 점으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여지서』에 보이는 진위현의 호구수는 전후 시기와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그대로 신뢰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토지의 경우는 농지 파락 방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 전기에 비해 전국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였고, 두 지역도 대략 20% 가량의 농지가 감

소하였다. 임진왜란 이후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등의 시행으로 세금의 부과 대상이 토지에 집중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농지의 감소는 지역 주민이 납부해야 할 세금의 감소를 의미하였다. 전기에 비해 세율도 대폭 낮아졌기 때문에 토지세의 규모는 더욱 줄었다.

전기에 비해 큰 폭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 지역은 도내에서 작은 군현에 해당하였다. 18세기 후반 간행된 『호구총수』를 통해 두 지역의 상대적 규모를 비교해 보자.

경기					충청도				
군현	호(戶)	구(口)	남자(명)	여자(명)	군현	호(戶)	구(口)	남자(명)	여자(명)
양주	12,465	60,425	30,210	30,215	충주	17,809	87,331	42,994	44,337
수원	15,139	57,660	28,240	29,420	홍주	12,646	52,761	25,802	26,959
광주	10,568	50,508	24,402	26,106	청주	13,558	47,046	23,274	23,772
개성	11,525	49,623	23,827	25,796	공주	16,402	44,438	27,878	16,560
강화	9,801	34,231	18,866	15,365	진천	5,717	30,294	13,552	16,7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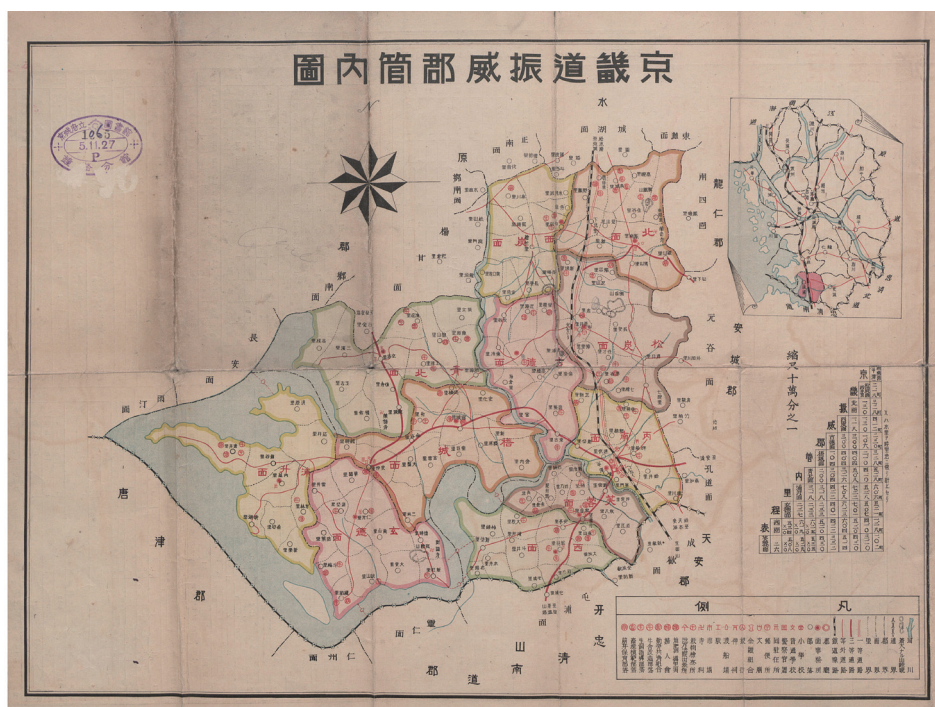
중간내용 생략

시흥	1,934	7,245	3,360	3,885	평택	1,524	5,860	2,884	2,976
진위	2,137	7,093	3,484	3,609	영춘	1,405	5,654	2,823	2,831
중간내용 생략					연풍	1,817	5,465	2,768	2,697
마전	1,011	3,605	2,207	1,398	진잠	1,380	5,150	2,874	2,276
양천	802	2,793	1,415	1,378	회인	1,190	4,468	2,332	2,136

진위현은 경기 38개 군현 가운데 31번째, 평택현은 충청도 54개 군현 가운데 50번째에 해당되는 호구수를 보유하고 있었다. 진위는 도내 가장 규모가 컸던 양주에 비해서 1/9밖에 되지 않는 호구였고, 평택은 충주의 1/15에 불과했다. 평택의 경우에는 도내에서 가장 호구가 적었던 회인과도 큰 차이가 없을 정도였다.

근대적인 통계 방식이 도입되기 시작한 대한제국 시기의 인구 통계는 호구수에 비해 당대의 현실에 가까운 자료이다. 1910년경 진위현은 인구 1만 6천 명을 넘어섰다. 조선시대 호구수에 비하면 2배 이상이 증가한 수치이다. 18세기 후반 이래로 급성장한 수원의 바로 아래에 위치한 고을이었고, 충청도와 전라도로 내려가는 교통의 요지라는 강점이 부각되면서 급격한 인구 성장을 이룬 것으

로 판단된다. 이에 반해 평택현은 1910년경에도 인구가 5,500여 명에 불과했다. 18세기 후반의 호구수보다도 감소한 것이다. 주변에 비교적 큰 규모의 고을이 산재하였고, 주요 도로에서도 살짝 빗겨나간 것이 고을의 성장을 더디게 한 요인일 것이다. 농지의 절대 규모가 부족했던 것도 농민들의 이주를 유도하지 못한 중요한 이유였다. 요컨대, 조선시대 대부분의 시기에 평택현과 진위현은 매우 작은 군현이었다. 이후에 약소한 두 군현의 통합은 두 지역이 가진 지리적 이점을 극대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 결과 현재는 인구 50만이 넘는 수도권 대도시로 성장하였다. 통합 이후에 도시의 성장 과정은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이며, 평택시의 지리적 강점과 역사적 정체성을 밝히는 하나의 단서가 될 것이다. **소사별**



경기도진위군관내도(1929)

제2회 평택지역 유물 소장가와의 만남 개최

평택에 유물이 이렇게 많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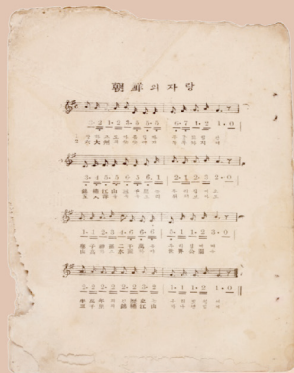
평택학연구소

2021년 3월 24일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평택시와 평택문화원 주최, 평택학연구소 주관으로 '제2회 평택지역 유물 소장가와의 만남'을 개최하였다. 현재 평택시는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유물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2021년 평택시에서는 유물 확보를 위해 두 차례의 걸쳐 평택시 박물관 유물 공개 구입을 진행하였다.

평택학연구소에서도 박물관 건립과 유물 확보를 위해 '제2회 평택지역 유물 소장가와의 만남'을 개최하게 되었으며, 사전 등록한 단체와 개인 17개 소장처와 함께 현장 접수를 통해서 1,000여점의 유물을 소개하였다. 이번 행사를 통해 소개된 유물 중 일부는 이후 소장가가 박물관의 건립을 바라면서 기증으로 이어져 박물관 건립에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박성복 평택학연구소장의 진행과 황정수 미술사가와 허홍범 과천추사박물관 학예사가 전문위원으로 해당 유물이 갖는 의미와 콘텐츠 활용 방안에 대해 해설했다. 참여한 소장가는 다음과 같다.

구분	소장처 및 소장가
단체	평택시, 한국근현대음악관, 평택문화원, 진위향교, 평택향교, 원주원씨대종회, 현덕면 운정1리, 민세안재홍선생기념사업회
개인	정수일, 박성복, 정광순, 김대규, 박복만, 신권식, 원영재, 강호흔, 최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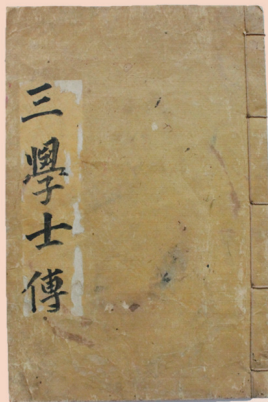
근화창가 | 한국근현대음악관

‘근화창가’는 조선의 민족정기가 담겨있어 금지됐던 일제강점기 노영호의 창가집이다. 노동은 교수가 소장하고 있다가 평택시에 기증한 것이다. 이외에도 각종 창가집과 신호나팔, 옛엽서, 음반 등을 소장하고 있다.



농지부문서 | 평택시기록관

평택시기록관은 평택시의 행정자료를 중심으로 소장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을 출입하는 출입증으로 송탄출장소 출입증함을 비롯해 농촌지역이라는 특징을 잘 보여주는 농지부 문서, 1953년 오산비행장 정발부동산 문서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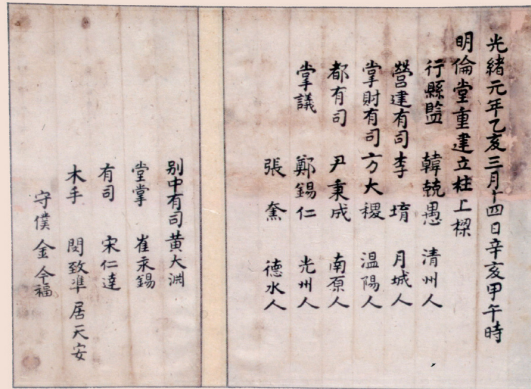
삼학사전 | 평택문화원

평택문화원에서는 대부분의 사료를 구입, 기증으로 200여점을 소장하고 있다. 평택의 역사, 사회, 인물, 민속, 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 유물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근대부터 현대까지 다양한 시대를 아우른다.

진위현객사 전패 | 진위향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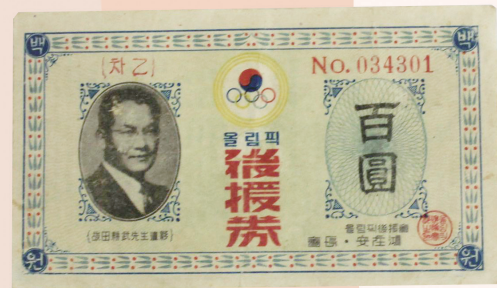
진위향교의 소장품으로는 진위현객사 전패·궐패, 한성원명명록, 장의증경록, 향약절목 등으로 주로 지역 인사와 사회의 동향을 잘 볼 수 있는 자료이며, 특히 진위현객사 전패·궐패의 경우 희소성과 가치가 매우 높은 유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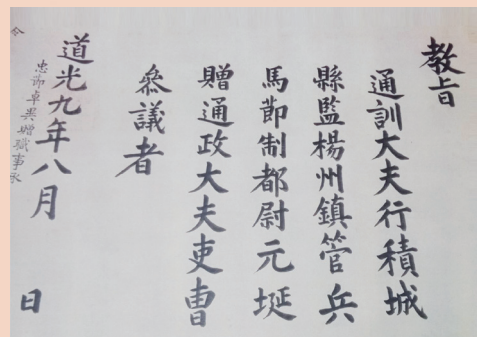
평택향교 중수기 | 평택향교

평택향교는 중수기와 교임록, 홀기 등이 있다. 특히 중수기는 향교를 새로 지을 때의 기록으로 대들보 안에 흙을 판 후 접어 넣은 것인데 나중에 발견된 것이다. 조선후기의 향교 건립과 관련된 유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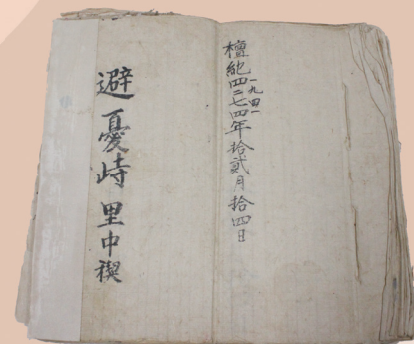
올림픽후원권 | 민세안재흥기념사업회

조성상고사감,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 런던올림픽후원권, 교과서 속 안재홍의 글 등을 소장하고 있다. 독립운동가 안재홍의 유물들은 지역을 이해하고 인물을 선양하는 중요한 유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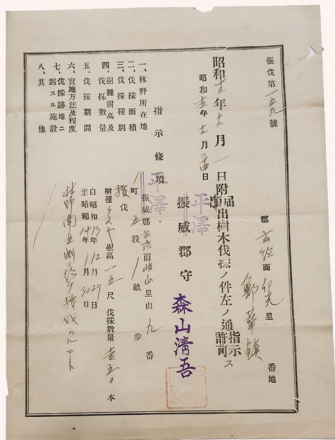
원연증직교지 | 원주원씨대중회

조선시대 것으로 원주원씨세보, 원연증직교지, 속인소씨증직교지 등 원형 상태가 매우 잘 보존된 유물로 족보류와 교지이다. 원연증직교지 맨 끝부분에 교지를 주는 사유와 승정원일기가 맞아 떨어진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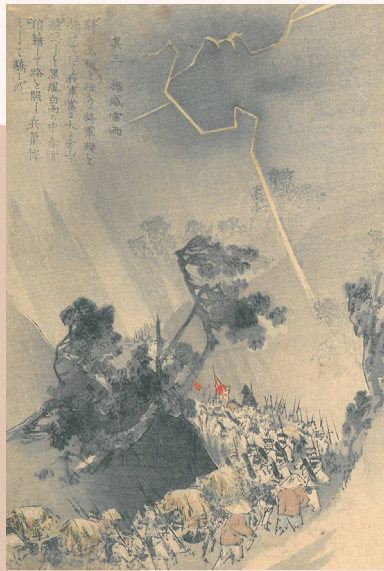
피우치이중계 | 현덕면 운정1리

1941년 현덕면 운정1리 피우치마을을 중심으로 대정, 글강이 마을사람들이 모여 친목과 화합을 위해 작성한 피우치이중계이다. 규약, 임원, 세입, 세출 등이 기입돼 있어 마을의 운영과 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



임야별목지시서 | 정수일 소장가

물품대금 계산서, 임야별목지시서, 공이열 편지, 현덕면 국세조사시험, 인광리 인구조사소표 등 주로 선조들의 생활사적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다. 평택 출신 황경수 제헌의원의 선거 홍보물도 있다. 근현대 현덕면을 중심으로 평택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유물이다.



일청전쟁회권 | 박성복 소장가

가전 문서 및 도서와 함께 평택과 연관성이 밀접한 유물을 구입하는 등 높은 지역성을 가지고 있다. 일청전쟁회권의 경우 청일전쟁시 평택 근처에서 일본군과 청군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으로 국내에서 구하기 어려운 유물이다.



천운소통 | 고, 황대영 소장가

지금은 작고한 황대영 소장가의 200여점이 넘는 유물을 정수일 소장가가 보관하고 있다. 조선시대부터 근대까지 고서, 문서, 족보, 간찰, 교재 등을 소장하고 있으며, 특히 천운소통이라는 고서는 중국 역사의 대통을 써놓은 책인데 1406년에 발간된 초간본으로 가치가 매우 높다.



입학도설 | 정광순 소장가

조선시대 정도전이 쓴 삼봉집과 봉화정씨세보, 입학도설 등이 있다. 정조유음은 투박한 면이 있지만 18세기 말의 한글을 잘 보여주고 박물관에서 활용도가 높은 유물이다.



말안장 | 김대규 소장가

석환, 말안장, 3혈총통, 환도 등으로 전쟁 및 무기 등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다. 실제로 평택에서 쓰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국내에서는 당시 모든 전쟁에서 비슷한 것들을 썼다는 것을 감안하면 충분히 가치가 있다.



데니태극기 | 박복만 소장가

퀼트로 만든 구한말 데니태극기, 1910년 일제강점기 종이 만국기, 1947년 비단으로 만든 신탁찬성 손수건, 현대에 만든 광목 태극기, 구한말의 이왕 담배 홍보용 카드 등을 소장하고 있다.



대곡일기 | 신권식 소장가

대곡일기, 고령신씨세보 등을 소장하고 있다. 특히 대곡일기는 소장가가 1959년부터 써온 일기로 시대적 사항이나 물가, 교육 등 생활사적인 면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아 경기문화재단에서 3권의 책으로 엮어 발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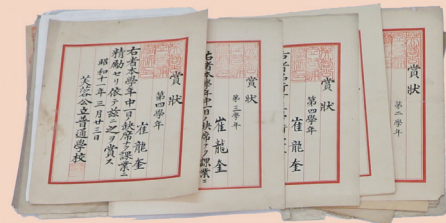
원주원씨종계좌목 | 원영재 소장가

원주원씨종계좌목과 양자입안 문서를 소장하고 있다. 양자입안 문서는 조선시대 양자입안 문서로 예조에 올려 승인을 받아 직인을 찍은 문서다. 양자입안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사례편람 | 강호흔 소장가

조선시대 소미통감절요, 칠언시, 오언시, 사례편람 등을 소장하고 있다. 평성을 남산리에 거주했던 첨지중추부사 강호보 가문의 고서이다.



부용공립보통학교 상장일괄 | 최순자 소장가

소장가 아버지의 일생 살아오면서 발생한 자료로 부용공립보통학교 상장, 학생증, 지도, 교과서 근대 서지와 옛사진 등이 있어 지역의 생활상과 옛 모습을 유추할 수 있는 유물이다. **소사벌**



웃다리문화촌 복합문화공간으로의 첫 걸음

『감각의 정원』展

최인경 웃다리문화촌 팀장



『감각의 정원』展 포스터

폐교 문화 재생 공간인 '평택문화원 웃다리문화촌'은 지역 내의 문화예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시 공간 리모델링 공사를 마무리하고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새 출발을 기념하기 위해 『감각의 정원』展을 기획하였다.

다양한 작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단장한 후 첫 선을 보이는 이번 전시는 8월 20일부터 10월 22일까지 회화와 설치 작품은 물론 영상 작품을 전시하며 다매체 예술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발돋움한 '웃다리문화촌'의 새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역량 있는 예술인들의 도전적인 창작활동을 한층 폭넓게 지원하며 지역주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장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의도

우리는 매일같이 감각을 통하여 느끼고, 생각하고 그것을 자신의 기억 속에 저장하는 과정을 거친다. 삶을 살아가면서 감각하지 않는 순간이 없듯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지며 세상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각자의 해석으로 저장한다.

이러한 감각에 대한 일련의 과정은 예술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예술가가 어떠한 사물을 감각하고 그것을 본인의 방식으로 풀어내면, 관람자는 작가가 의도한 어떠한 자극으로부터 비일상적인 체험을 하고 또 다시 그것을 새로운 기억으로 간직하게 된다.

이러한 작가와 관람자의 감각의 교류는 전시장이라는 공간에 ‘멈춰있지 않은 끊임없는 소통의 장’으로서의 역할과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

전시 『감각의 정원』은 앞에서 이야기한 오감을 새로운 감각의 연결고리로 만드는 작품을 통해 관람자와 그들의 행위, 생각 등이 그것을 담아내는 ‘공간’과 만나 어떠한 의미변화를 발현할 수 있는지에 관해 질문한다. 이러한 감각의 교류와 전시 공간의 체험이 전시장을 찾는 관람객들의 마음 속 작은 정원으로 기억되기를 기대해 본다.

Section 1 Space 1,2 체험으로 감각하다

첫 번째 섹션은 관람자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작가 류승환과 몬트킴의 작품으로 구성된다. 작가가 어떠한 대상을 감각하고 다시 그것을 작업으로 끌어오는 과정을 단순화하여 관람자도 자신의 작품을 만들어보는 체험과 작가가 의도한 낯선 공간의 경험으로 관람자가 벽면에 기록과 같은 드로잉을 유도하는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Section 2 스토리가 있는 감각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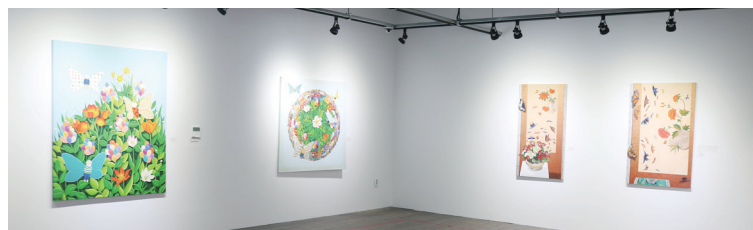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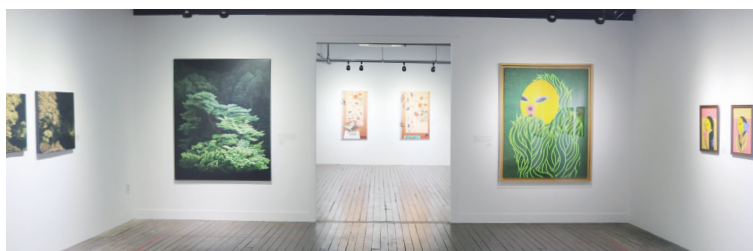
Space 4



두 번째 섹션은 젊은 작가 4인_강주형, 이태강, 이현희, ORI의 전시로 구성되어 있다. 끊임없이 반복하며 움직이는 밈(meme)과 같은 구성을 보이는 영상작품, 그림책과 함께 전시되는 원화 작품, 종이공예로 이루어지는 일상의 오브제 등을 만나볼 수 있으며 특히 이태강 작가의 그림책 '름름이' 속 구름 조형물을 이용한 포토존은 전시장을 찾는 많은 관람객에게 즐거움을 제공한다.



이태강 작가의 작품_여행자되기



Section 3 자연과 나비로 만나는 감각의 정원

Space 5, 6

세 번째 섹션은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작가 6인_김경옥, 백미영, 안윤모, 양대원, 이하나, 정환선의 자연과 나비를 소재 한 작품들을 만나 볼 수 있다. 특히 애니메이터 백미영의 단편 애니메이션 '바람'을 전시기간 중 스페이스 6에서 상영한다.



Section 4 Space 7 감각의 실험

네 번째 섹션은 손민광, 정혜진 작가의 작품으로 구성된다. 평소 평면 작업뿐만 아니라 입체, 설치 등을 통해 다양하게 창작 활동을 해 온 두 작가의 설치물과 평면작품을 각각 만나 볼 수 있다.

Section 5 Space 8 나비가 있는 감각의 정원



다섯 번째 섹션은 크리스탈 레진을 이용하여 투명한 나비와 자연을 표현한 신예진 작가의 작품을 만나 볼 수 있다. 기억 속 자연의 모습을 재해석해 낯선 시선으로 연결된 새로운 자연 찾기를 관람자에게 제안한다.

지난 15년간 시민을 위한 장소로 자리 잡아 온 웃다리문화촌이 『감각의 정원』展을 통해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딛는다. 더욱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으로 채워 질 새로운 시작을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애정 어린 관심을 주시길 바란다. **소사별**

사라지기 전, 그리움을 남기다
꿈틀거리던 그 곳, 갯벌의 기억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조사팀



가족의 생계에 큰 보탬이 됐던 갯지렁이 쇠스랑



포승 신영2리 빨골 앞바다(1973)



뒷마루에 앉아 미소를 짓고 있는 김홍식

김홍식씨는 권관1리 상하동이 고향이다. 군대 제대 후 농사와 어업을 병행했다. 그 시절 권관리, 장수리, 신영리 주민들은 대부분 그러했다. 1970년 초 아산방조제 건설 당시 극동건설 소속으로 작업현장을 오가는 보트를 몰았다. 1973년부터 1999년까지 권관어촌계장을 역임하면서 지역 봉사에도 힘썼다.



김홍식과 갯지렁이 쇠스랑

이 어구는 현덕면 권관1리 상하동 마을 김홍식 (1944년생)씨가 1974년 아산방조제 완공 전까지 갯벌에서 갯지렁이 잡던 쇠스랑이다. 갯지렁이는 1960~70년대 일본으로 대량 수출되던 효자 품목이었다. 포승, 현덕 바닷가 사람들은 부업으로 갯지렁이를 잡았다. 김홍식씨는 55년 전인 1967년 안중 대장간에서 제작한 이 쇠스랑으로 갯지렁이를 잡았다. 땀과 눈물 깊게 박힌 갯벌은 지금 사라지고 없다. 굵은 주름과 투박한 두 손, 녹슨 쇠스랑만이 그 때를 기억한다.

갯지렁이 쇠스랑 | 갯지렁이를 잡을 때 쓰는 어구

쇠로 된 몸체에 나무자루를 박았다. ㄱ자로 구부러졌는데 일반적으로 발이 세 개다. 갯지렁이는 빨이나 모래 속에서 식하는데, 이를 잡기위해 갯지렁이 쇠스랑은 발의 간격이 좁고 길며 자루가 짧은 것이 특징이다. 이는 한 손으로 쇠스랑을 잡고 작업할 수 있게 하였기 때문이다.



1967년 제작된 갯지렁이 쇠스랑(쇠스랑45cm×손잡이30cm)



사라진 갯벌위에 조성중인 평택항신생매립지



평택 유일의 어항, 권관항

평택호방조제 배수갑문 옆에 위치한 평택 유일의 포구 권관항이다. 갯벌은 사라졌지만 포구는 남아 만선의 꿈을 꾸고, 현재 조성중인 평택항신생매립지는 또 다른 평택의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 **소사발**



평택문화 CAFE

2021 평택문화원 창립 5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만나다

평택문화원 창립 5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50주년을 맞이하는 평택문화원

평택문화원은 향토문화의 창달과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1953년 사설문화원으로 시작하여 1972년 법인으로 창립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평택문화원은 지역고유 문화를 계발·보급·전승 및 선양하고 있으며, 지역사를 연구조사하고 사료를 수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 문화발전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문화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사업은 전통문화 발굴보존 사업(소사별단오제, 평택시 정월대보름, 풍어제 등), 지역사연구 및 발간 사업(사라져가는 마을조사, 지역사자료 수집 등)이 있다. 그리고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우리고장 알기 프로젝트, 평택야행, 평택학시민강좌, 평택시티투어 등), 웃다리문화촌 사업(주말농장, 문화예술프로그램, 어르신문화동아리 등)이 있다.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2009년





- 1 웃다리문화촌 주말농장(2017)
- 2 소사별단오제(2018)
- 3 진위향교 나들이(2018)
- 4 진위향교 풍악을 울려라(2019)
- 5 웃다리문화촌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장승과 솟대'(2020)
- 6 평택야행(2020)
- 7 평택학 학술대회(2021)
- 8 평택 달맞이축제(2021)





추진위원회 2차회의(2021.4.8)



추진위원회 3차회의(2021.6.2)



추진위원회 3차회의(2021.7.7)

대한민국문화훈장 수상, 2014년 경기도 우수문화원상, 2018년 지역문화대표브랜드 우수상, 2020년 제7회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농촌빈집 유희시설활용 우수사례' 금상 등을 수상하였다.

2021년은 평택문화원 설립 68년, 평택문화원 창립 50주년이 되는 역사적인 해이다. 뜻 깊은 해를 시민과 함께 기념하고자 이재덕 위원장과 신태식·오은영·김희경·안도향·이충원·최시영 위원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했다.

평택문화원 창립 5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회의

회의는 2020년 8월, 2021년 4월, 6월, 7월 4차례에 걸쳐 평택문화원에서 열렸다. 작년 1차 회의 때는 '문화축제'라는 주제로 글짓기 및 사생대회, 동아리공연, 운동회 등 남녀노소 즐길 수 있도록 계획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행사 규모를 축소하여 '창립50주년 및 문화의 날 기념식', '아름다운 평택시 사진대회'와 '평택문화원 발자취 50년 전시' 등을 준비 중이다.

시민과 함께하는 평택문화원 창립 50주년 기념사업

2021년 연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평택문화원의 역할과 과제라는 주제로 '평택문화원 창립 50주년 기념포럼'이 열릴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강진갑 경기대학교 교수는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지방문화원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하고,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박성복 평택학연구소장은 ‘평택문화원 설립 68년, 지역문화의 성과와 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토론자는 송은옥 한국문화원연합회 부장, 평택시국제문화국장, 평택시의회 의원으로 구성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평택문화원 발전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할 것이다. 평택시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와 55만 대도시의 위상에 맞는 독립 문화원사 건립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지역문화의 거점 공간 확보를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창립 50주년 및 문화의 날 기념식’은 2021년 연말 평택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한다. 2021년 문화의 날과 평택문화원의 창립 50주년을 기리고,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한 자에게 시상하고 다양한 공연을 통해 시민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전파할 계획이다.

‘아름다운 평택시 사진대회’ 참여대상은 전 국민이며, 내가 생각하는 평택시의 아름다운 문화와 역사가 깃든 장소를 주제로 사진을 촬영하여 시상하고, ‘평택문화원 발자취 50년 전시’는 50년간의 활동 모습을 10월~11월에 웃다리문화촌에서 전시할 예정이다. **소사별**

2021년 평택문화원 창립 50주년 문화행사

아름다운 평택시 사진공모전

공모개요

- 공모전명 : 2021년 평택문화원 창립 50주년 문화행사 <아름다운 평택시 사진공모전>
- 목적 ① 평택의 아름다운 문화, 역사가 깃든 장소를 주제로 촬영한 사진과 과거 평택에서 찍은 인물·기록사진을 공모전을 통해 수집함.
② 수집된 사진은 출판자의 동의를 얻어 문화행사, 축제 등 활용 및 기록을 보존하기 위함.
- 주최/주관 : 평택문화원/평택문화원 창립50주년 기념위원회
- 후원 : 평택시, 평택사진협회

공모요강

- 참가대상 : 전 국민
- 작품규격 : 자유
- 작품주제 : 평택의 아름다운 문화와 역사가 깃든 장소를 주제로 촬영한 사진, 과거 평택에서 찍은 인물·기록사진
- 출품수 : 1인당 3작품 이내
- 참가비 : 무료
- 공모전에 제출한 사진은 인스타그램, 홈페이지, 문화행사, 기록 등에 활용함

접수기간 및 방법

- 2021년 9월 13일(월) ~ 2021년 9월 28일(화)
- 제출서류 : 1) 참가 신청서(평택문화원 홈페이지 참고)
2) 공모전 사진 원본파일 (스마트폰 또는 핸드폰 촬영 등의 형식으로 제출)
- 접수방법 : 평택문화원 홈페이지(pmhwh@naver.com) 접수

심사발표

- 심사발표 : 2021년 10월 6일(수), 평택문화원 홈페이지 게시
- 심사위원 : 관련분야 권위자로 위촉하며, 공모전 당일 발표함

수상내역

구분	부문	사상금	사상자
아름다운 평택시 사진공모전	대상 1명	상금 100만원	평택시장
	최우수상 2명	상금 50만원	평택시장장, 평택문화원장
	우수상 3명	상금 20만원	평택문화원장
	특선 10명	상금 5만원	평택문화원장
	입선 30명	상금 3만원	평택시장문화원장

전시계획

일시	장소	비고
2021년 10월 27일(수) ~ 11월 28일(일)	미정	*상당여 여건 변동 가능함

기타문의

- 평택문화원 창립 50주년 문화행사 담당자 (070-7811-9053)



아름다운 평택시 사진공모전



『독립운동가 이석영의 꿈』을 읽고

이연호 용이초등학교 학생



최근 독립운동가인 이석영 선생의 후손을 찾았다는 신문 기사를 접하게 되면서 이석영 독립운동가를 알게 되었다. 독립운동가 이석영 선생은 ‘경기도 만석꾼’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제 식민지 시대에 ‘경기도 만석꾼’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었다는 것은 그 당시의 재산을 현재 가치로 따지자면 수천억 원에 달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독립운동을 위해 6형제가 합심하여 전 재산을 처분하고, 서울 정동 본가와 경기도 평택, 남양주, 충북 청주의 땅도 헐값에 팔아 큰 손해를 보고도 상속받은 1만여 석의 땅을 내놓았다는 것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만약 내가 이석영 선생이었다면 땅을 아까워하고

팔지 않았을 것 같다.

이석영 선생은 독립운동을 자금으로만 지원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의로운 일들도 많이 하셨다. 가장 중요한 요점은 다른 부자들처럼 친일파에 포섭되지 않고 자기 재산으로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대표적인 업적으로는 신흥무관학교를 세워서 독립군 양성과 독립운동의 전초기지를 건설



『독립운동가 이석영의 꿈』 표지





하였고, 신흥무관학교에서 육성한 독립운동가들이 나중
에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리고 이회영 등이 이끌었던 아나키스트 운동, 김원봉
의 의열단, 임시정부의 한국광복군도 신흥무관학교 출신
이었다. 만약 독립운동가 이석영 선생이 신흥무관학교를
건립하지 않았다면 독립운동이 성공적으로 일어나지 않
았을 것이다. 하지만 1920년 신흥무관학교는 일제의 강
력한 탄압으로 폐교되면서 독립운동은 점점 힘들어졌다.
이러한 역경과 고통 속에서도 이석영은 북경과 상해를
오가며 독립운동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석영 선
생은 중국 상해의 후미진 객창에서 비지로 삶을 이어가
다가 안타깝게도 굶어서 돌아가셨다. 돌아가신 후에도
대규모의 주택개발로 인해 무덤도 사라지게 되어 역사 속
에서 잊힌 인물이 되었다.

다행스럽게도 영면하신 지 57년 만에 대한민국 정부는
독립운동가 이석영 선생의 평생에 걸친 독립운동 공로를
인정해 '건국훈장 애국장'을 수여했다. 만약 일제에 포섭
당했다면 높은 관직과 수천억 원의 재산으로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누리며 잘 먹고 잘살 수 있었을 텐데 이러한
어려운 독립운동을 선택한 독립운동가 이석영 선생이 나

는 대단히 존경스럽다고 생각했고,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독립운동 역사에 대단한 업적을 남겼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독립운동가 이석영 선생은 잃어버린 우리
나라를 되찾기 위해 수천억 원의 재산과 자신의 소중한
목숨까지 바쳐가며 평생 독립운동을 멈추지 않았다는 점
이다. 나는 위대한 독립운동가 이석영 선생이 실천한 나
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아무나 실천할 수 없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본받아야겠다고 다짐했고, 우리나라 독
립운동에 헌신하신 독립운동가 이석영 선생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단한 자부심과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
서 앞으로 나도 독립운동가인 이석영 선생이 실천한 나
라 사랑 정신을 본받을 것이다. **소사벌**



국가보훈처 선정 2020년 8월, 이달의 독립운동가 이석영



노티나무가 된 이무기 진위

문화사업부

평택문화원에서는 경기도·평택시와 함께 진위향교를 대상으로 '향교·서원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통공연을 보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진위향교 활성화 사업 '오감만족 선비문화축제'를 더 풍성한 축제로 만들고자 볼거리를 다양화하였습니다.

진위향교 명륜당 아래에는 수령이 250년이 된 노티나무가 있는데, 용과 비슷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어 재미난 설화가 생겨났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내려온 진위향교 노티나무 설화를 이해북 동화작가와 함께 한편의 동화로 만들어냈습니다.



옛날 옛날 진위천에 이무기 한 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원래 구렁이였던 이무기는 오백 년 동안 수행을 해서 이무기가 되었고, 용이 되어 승천하기 위해 다시 오백 년 가까운 세월을 수행 중이었어요. 가까이에 사는 이무기들이 힘만 믿고선 가축이나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고 심술을 부려 모두를 두려움에 떨게 하였지만, 진위천의 이무기는 다른 이무기들과는 달랐어요.



“얘, 진위! 넌 언제까지 그렇게 착한 이무기 노릇만 할래?
이제 승천할 때도 얼마 남지 않았잖아. 우리처럼 사람들 놀
라게 하는 재미도 좀 느끼고 그래 봐. 얼마나 신난다고.”

“아니야, 난 여태 그래왔던 것처럼 승천하는 날까지 사람
들을 돕고 싶어. 그래야 떳떳하게 여의주를 받을 수 있지 않
겠어?”

“야, 야, 관둬라. 그런다고 진위가 말을 들을 애냐? 우리나
가서 신나게 놀자. 우린 간다.”

“그래, 잘들 가. 사람들을 너무 괴롭히지 말고. 응?”

“어이구. 저, 저 못 말리는 녀석. 쫓쫓, 잘 있어라.”

한심하다는 듯이 혀를 끌끌 차며 떠나는 친구들을 보면서
도 이무기는 결코 서운하지 않았어요. 그저 드넓은 진위천을
오르내리며 어디 도울 일은 없는지 찬찬히 살필 뿐이었지요.

어느 날, 한 유생이 진위세월교를 건너
다 그만 폭우로 불어난 물에 휩쓸려 깊은
진위천에 빠지고 말았어요. 막 승천을 하
려던 이무기는 깜짝 놀라 유생에게 다가
가 얼른 안아 올렸지요.





“으, 으... 명륜당에 가야 하는데, 명륜당에...”
 “응? 명륜당?... 아, 저기 향교에 있는 곳으로구나.”
 이무기는 승천을 해야 하는 것도 잊은 채 유생을 안
 아 진위향교로 데려갔어요. 홍살문을 지나니 어디선
 가 글 읽는 소리가 낭랑하게 들려왔어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소리가 나는 곳을 찾아 귀를 기울이니 담 너머
 에서 들려오는 거예요. 이무기는 조심스레 외삼문을
 열고 들어섰지요. 글 읽는 소리는 바로 명륜당에서 나
 는 소리였어요. 이무기는 유생을 살포시 내려놓고 처
 음 들어와 본 향교를 휘이 둘러보았어요.

한 편 밖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승천을 해야 할 시
 간인데 이무기 진위가 보이질 않았기 때문이에요.
 “애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보이질 않으니.”
 “그러게. 어제 분명 승천 준비를 다 마쳤다고 했거
 든.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친구들은 진위천을 살살이 찾았지만 진위향교 안
 에 있는 이무기를 찾을 수 없었어요.
 “안되겠다. 이러다간 우리도 승천할 기회를 잃을지
 몰라.”
 “그래, 안 됐지만 뒤에 알아서 오라고 하고 우리 먼
 저 올라가자.”





이무기들은 저마다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늘과 땅이 갈라지는 듯한 요란한 소리가 비와 함께 진위향교에도 쏟아져 내렸어요. 유생들 글 읽는 소리에 정신없이 빠져 있던 이무기는 뒤늦게야 그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아, 친구들이 다 승천을 했구나. 난 어떡하지?’

이무기는 한참을 생각에 잠겼어요.

‘바로 따라 올라가면 되는데...지금이라도 갈까? 아니면...’

이무기의 머릿속으로 그 동안 수행해 온 천 년의 나날들이 끊임없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 오랜 세월동안 용이 되기를 소원하며 착한 일만 하려고 애써 온 이무기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흐뭇하게 생각하며 저절로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지요.

“나는 그동안 열심히 수행해 왔어. 용이 되어 비, 구름, 바람을 부리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 하지만 난 과연 저 유생들의 낭랑한 음성을 떨쳐낼 수가 있을까? 아, 어떻게하지? 그래, 결심했어! 아무래도 난 진위향교에 남아야겠어. 그래서 오래오래 진위향교와 진위천을 지키겠어.”

이무기의 속마음은 곧 하늘나라에 닿았어요. 옥황상제님은 진위천 이무기의 선한 마음을 가상히 여겨 승천을 명하는 대신 명륜당 앞에 있는 느티나무에 이무기의 영혼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느티나무는 무럭무럭 자라나면서 멋진 용의 모습이 되어 갔어요. 늘 착하게만 살았던 이무기 진위가 마치 용이 된 것처럼요.

이무기 진위는 지금도 명륜당 앞 늪름한 용의 모습을 한 느티나무 안에서 진위향교의 수호신이 되어 낮에는 글을 익히고, 해가 지면 진위향교와 진위천 주변을 지키고 있답니다. 진위향교 안에 들어가면 느티나무를 꼭 눈여겨보세요. 푸르른 잎새를 사랑거리며 명륜당 쪽으로 몸을 기울여 다소곳이 글 읽는 소리에 열중하는 이무기의 모습을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소사별**



시민의 축제 소사벌단오제

최희련 경영지원부 주임



우리가족 소원등 달기(현화근린공원)

코로나19 극복 희망메시지 우리가족 소원등 달기

평택시민 2,000가구가 코로나19 극복, 평택시의 안녕,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빌었다. 2,000개의 소원은 북부(이충동분수공원), 서부(현화근린공원), 남부(배다리생태공원, 평택시청)에 게시되어 자신의 소원을 찾아 볼 수 있도록 했다. 많은 시민들이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빌고, 행사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 이루어길 바라는 마음도 깃들여져 있었다.



우리가족 소원등 달기(평택시청 광장)



우리가족 소원등 달기(이충동분수공원)

일상에서 만나는 소사벌단오제



평택시민과 함께하는 단오문화체험(현화근린공원)



평택시민과 함께하는 단오문화체험(이충동분수공원)

평택시민과 함께하는 단오문화체험

6월 12일(토)에 북부(이충동분수공원), 서부(현화근린공원), 남부(배다리생태공원)에서 평택시민 750명이 단오전시, 민속놀이체험, 소원달기, 단오떡 나눔에 참여했다. 소원달기는 소원접수기간을 놓친 시민을 위해 직접 소원을 작성하여 소원등을 걸도록 했다. 단오떡은 옛 선조들은 악귀와 병마를 퇴치하기 위해 향이 강한 쑥을 이용하여 음식을 했다고 한다. 이러한 전통을 잇기 위해 시민에게 단오떡에 대한 의미를 알려주고 나눠줬다.



단오미술대회(단오엽서컬러링)



단오미술대회(단오선그림그리기)

단오미술대회 및 수상작품전

단오미술대회는 평택시 초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단오선 그림그리기, 단오엽서 컬러링대회로 진행되었다. 대회 참여 학교는 총 20곳이었으며, 단오선 그림그리기 참여자는 270명, 단오엽서 컬러링대회는 336명이었다. 심사는 6월 19일(금), 전문심사위원이 색채감·표현력·메시지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42개 작품이 선정되었다. 수상작은 웃다리문화촌에서 8월 2일(월) ~ 8월 13일(금)까지 수상작품전을 개최하였다.

다양한 시민이
참여한
소사벌단오제

외국인과 함께하는 단오문화체험

평택은 미군부대가 위치해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특색이 있다. 6월 12일(토)에 안정리 로데오 거리에서 외국인에게 우리나라의 단오를 알려주는 행사로 진행했다. 행사내용은 단오전시와 민속놀이 체험, 단오떡과 앵두화채이었다. 앵두화채는 6월에는 제철 과일인 선조들이 무더운 여름 앵두화채를 만들어 먹었다고 한다. 이 행사는 백연다례원이 앵두화채와 다과를 준비하여 우리나라 전통다과에 대해서 알렸으며, 한국관광고등학교 학생들이 통역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 학생들은 6월 9일(수)에 김성규 해설사의 스토리텔링 교육을 통해 300명의 외국인에게 행사 안내, 전시 및 체험 등을 통역했다.



외국인과 함께하는 단오문화체험(민속놀이체험)



외국인과 함께하는 단오문화체험(단오떡 및 앵두화채 안내)

전통과 현대를
잇는
소사벌단오제



민속음악대회(한빛예술단)

온택트 읍·면·동 민속음악대회

올해는 코로나19로 온택트 읍면동 민속음악대회를 개최했다. 종목은 자유였지만 농악과 민요로 총 5팀이 비대면(영상)으로 참가했다. 전문심사위원을 구성하여 준비, 가창, 표현 등 여러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금상은 신평동 풍물단(신평동), 은상은 한빛예술단(비전2동), 동상은 원평노을소리단(원평동)이다. 참가팀은 모두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진행했으며, 실제 공연처럼 복장을 갖춰 입고 열과 성을 다하여 공연을 펼쳤다. 이 모습은 평택문화원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소사벌**



민속음악대회(신평동 풍물단)

평범한 일상을 벗어나고픈 당신의 선택

평택시티투어

강수진 경영지원부 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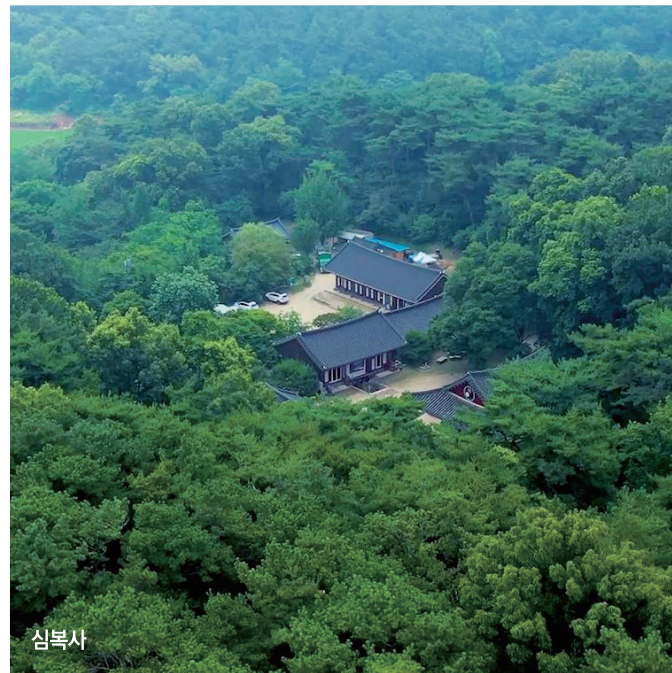
평택시티투어 이래서 좋다!

“저 오늘 떠나요 공항으로 핸드폰 꺼 놔요 제발 날 찾진 말아 줘” 볼빨간사춘기의 ‘여행’이란 곡의 가사이다.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여행을 꿈꾼다. 노래 가사처럼 비행기를 타고 떠나는 먼 여행도 좋지만 가벼운 몸과 마음으로 충분히 일상을 벗어날 곳을 평택에서도 찾을 수 있다.

금이 아름답다는 것을 알게 되면 별이 아름답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독일속담처럼 계절마다 다른 풍경을 보여주고 가볍게 떠날 수 있는 평택으로의 여행을 추천해 본다.

PYEONGTAEK CITY TOUR



심복사



농성



2010년 시작된 평택시티투어가 어느덧 11년을 맞이했다.

시티투어는 버스를 타고 어느 한 도시를 집중적으로 여행하는 방식으로 여행지에 대한 고민이나 운전
에 대한 피곤함, 경비에 대한 부담감을 덜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평택문화 코디네이터가 동행하여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평택의 진짜 매력을 느끼는 여행이 될 것이다.

들여다볼수록 매력적인 곳, 평택에 이런 곳이 있었나요?

설레는 여행의 시작은 어디를 가느냐를 결정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된다.

매년 평택시티투어가 시작되면 담당자는 평택의 소중한 문화유적지를 비롯해 숨은 명소를 찾아 고심
한다. 코로나19로 명소와 체험이 중단된 곳이 많기도 했지만 2021년에는 켜켜이 쌓인 피로감을 조금이
라도 풀 수 있는 여행지가 추가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코스 기획이 시작되었다.

새롭게 짜여진 2021년 평택시티투어는 오전에는 문화유적지와 작은 마을길을 걷고 오후에는 자연·환
경에서 휴식을 할 수 있는 코스로 짜여졌다. 문화유적지 투어는 진위향교, 평택향교, 팽성읍객사, 정도전
유적지, 원균장군유적지, 심복사이고 자연·환경 투어는 소풍정원, 평택호관광단지, 원평나루, 농업생태
원이다.

무엇보다 처음 진행하는 작은 마을길 코스는 평택의 사라져가는 마을 조사를 수년간 진행하며 평택
곳곳의 이야기를 알고계신 최치선 상임위원과 직원들의 많은 고심 끝에 정하였다.



현덕면 대안4리 구진개마을 전경

첫 번째 답사를 시작한 마을은 대안4리 구진개 마을이었다. 농업과 어업을 병행하던 마을. 일제강점기에 간척을 했지만 이 마을에서 간척된 논들은 일본인 소유였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소작농이었다고 한다. 아산만방조제가 건립되기 전까지 이곳은 평택의 대표 어장으로 이른 봄이 되면 특히 승어가 많아 만선을 이뤘으나 교통이 불편하고 살 사람이 적어 어민들의 삶은 항상 팍팍했다고 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찾은 구진개는 마을 어르신들의 친절한 웃음과 집집마다 가득 핀 꽃들로 팍팍했던 과거의 삶은 찾아볼 수 없었고, 마을에 활짝 핀 꽃들을 보니 ‘울긋불긋 꽃 대궐 차린 동네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노래가 절로 나왔다.

흙길을 밟으며 신나게 걷다보니 마안산 밑자락에 발밑으로 직접 느낄 수 있는 평택호를 선물같이 만나게 되었고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과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구진개 마을을 시작으로 오랜 시간 간직해

온 마을의 풍경과 이야기가 있는 ‘진위향교 세월교길, 원균 마을길, 은산리 마을길’까지 코스를 완성하였다.

풍성한 여행을 만들어 줄 평택문화 코디네이터

시티투어의 가장 좋은 점은 안내자가 동행하여 여행지에 대한 유익한 이야기를 들려준다는 것이다.

혼자만의 여행도 매력이 있지만 이야기를 나누며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는 여행은 더 큰 추억으로 남는 것 같다. 기존 문화유적지와 체험 위주의 투어에서 마을길과 자연·환경 코스가 새롭게 생긴 만큼 안내자의 역할도 더 커지게 되어 새롭게 안내자를 모집하였고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높은 경쟁률로 총 4명의 평택문화 코디네이터가 선발되었다. 이들은 시민들에게 평택의 풍성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 역사부터 지역, 생태, 자연까지 아우르는 내용을 각 전문가로부터 교육을 받으며 시민들과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다.



평택문화 코디네이터



평택시티투어 홍보영상

어느 계절에 가도 좋은 비대면 여행

많은 준비에도 불구하고 쉽게 끝나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해 영상으로 평택시티투어를 소개하게 되었다.

영상의 즐거리는 이른 더위가 시작된 6월 평택에 살고 있고, 평택에 살았던 남녀 주인공이 익숙함 속에서 새로운 평택을 발견하는 이야기이다.

평택의 북부, 남부, 서부 코스를 실제 여행하는 느낌에 영상미를 더해 평택시티투어의 매력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다. 현장에서 투어를 하며 사계절을 모두 느끼면 더없이 좋았겠지만, 영상을 통해서라도 휴식 같은 편안함을 느끼고, 사계절 내내 푸르름을 만끽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평택시티투어
홍보영상 보기



이제 곧 만나요!

평택시티투어를 준비하며 어느 덧 두 계절이 지났다.

여행하기 좋은 봄이 지나갔을 때 아쉬운 마음이 컸지만 이제 울긋불긋한 단풍이 흐드러지게 든 가을의 화려함을 평택시민이 느낄 수 있기를 바라며 2021년 평택시티투어를 기대해본다. **소사릴**

평택문화원이 걸어온 길

평택문화원은

지역사회 개발과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1953년 설립되었으며,

여러 사업을 통하여 평택시민과 함께

지역문화 창조와 전통문화 계승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주요사업

- ▶ **평택의 고유문화 개발 · 보급 · 보존 · 전승 및 선양**
 - 지역사의 조사 · 연구, 사료의 수집 및 보존
 - 문화 관련 자료수집 · 보존 및 보급
- ▶ **평택시 문화행사 개최**
- ▶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 · 외 교류**
- ▶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
-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 활동**
- ▶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및 본원의 목적사업 등**

▶ 전통문화 발굴보존 사업

- 소사별단오제
- 평택시 정월대보름
-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 지역 전통문화 발굴 및 재연

▶ 웃다리문화촌 운영

- 전시실, 세미나실, 운동장 등 시설 운영/대관
- 기획전시 및 축제 등 지역문화사업
- 주말농장

▶ 지역사 연구 및 발간 사업

- 평택학연구소 운영
- 지역사 발간 및 연구사업
- 마을조사 사업
- 지역사 사료 수집

▶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

- 문화유산 활용사업
- 평택시티투어
- 평택학시민강좌

▶ 기타 지역문화예술 활동

-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활성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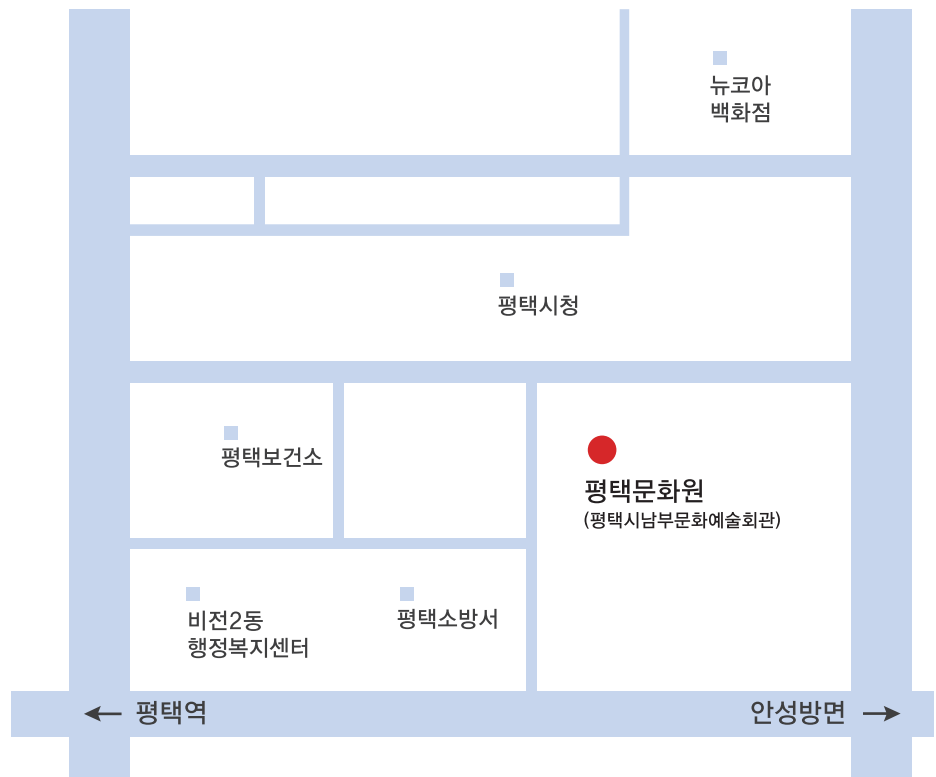
평택문화원의 연혁

2020년 9월 24일	웃다리문화촌 제7회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금상 수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2020년 3월 1일	제14대 평택문화원장 이보선 취임
2018년 10월 23일	웃다리문화촌 2018 지역문화대표브랜드 우수상 수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2015년 10월 9일	제22회 전국청소년민속예술제 최우수상 수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2014년 12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역문화 진흥표창(평택문화원장)
2014년 12월 19일	2014년 경기도 우수문화원상 수상
2014년 10월 17일	제10회 경기도청소년민속예술제 대상 수상(경기도지사상)
2014년 10월 5일	제55회 한국민속예술축제 은상 수상(강원도지사상)
2013년 9월 28일	제19회 경기도민속예술제 대상 수상(경기도지사상)
2012년 3월 1일	제12~13대 평택문화원장 김은호 취임(재임 2012. 3. 1~2020. 2. 29)
2009년 10월 16일	대한민국문화훈장 수상(평택문화원장)
2007년 12월 31일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 운영평가 표창 수상(문화부장관상)
2007년 10월 27일	2007 실버문화학교 프로그램 전국대상 수상(문화부장관상)
2006년 8월 1일	문화예술 체험학습장 웃다리문화촌 개관
2005년 3월 9일	평택시문화원을 평택문화원으로 명칭 변경
2003년 7월 28일	제10~11대 평택문화원장 오용원 취임(재임 2003. 7. 28~2012. 2. 29)
1998년 3월 6일	한국문화학교 지정
1995년 7월 27일	평택시문화원으로 통합(평택시문화원, 송탄문화원, 평택군문화원) 통합 초대원장, 제8~9대 평택시문화원장 유재호 취임(재임 1995. 7. 27~2003. 7. 27)
1994년 8월 24일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 문화체육부장관 제137호
1993년 10월 27일	사무국 이전(비전동 847 남부문화회관 내)
1993년 2월 26일	제7대 평택시문화원장 조중환 원장 취임(재임 1993. 2. 26~1995. 7. 26)
1989년 10월 11일	평택문화원을 평택시문화원으로 명칭 변경
1987년 8월 29일	문화공보부 승인(변경)
1986년 10월 16일	사무국 이전(합정동 294 평택시종합운동장 내)
1982년 12월 15일	제4~6대 평택군문화원장 김창복 원장 취임(재임 1982. 12. 15~1993. 7. 26)
1978년 2월 25일	제3대 평택문화원장 이주상 원장 취임(재임 1978. 2. 25~1982. 12. 14)
1972년 12월 11일	문화공보부 인가
1971년 2월 20일	평택문화원 창립총회, 제1~2대 평택문화원장 민형식(재임 1971. 2. 2~1978. 2. 24)
1953년	평택문화원 설립(설립자 장순영, 사설문화원)

평택문화원 임직원

직 위	성 명	소 속	직 위	성 명	소 속
원장	이보선	(주)주광에너지 대표이사	이 사	이계문	서평택새마을금고 전무
부원장	최창목	(주)대한공업사 대표이사		안도향	보스턴어학원장
	오은영	평택대학교 실용음악학과 교수		김진수	치아사랑 치과의원 원장
	강기종	(주)디앤디 대표이사		박용민	로알안경원 대표
	신태식	(주)현대AVC 사장		박기철	평택대학교 중국어과 교수
	이재덕	(주)삼보텔레콤 대표이사		이순녀	풍년떡푸드 대표
감사	박정순	고려인삼농원 대표		황춘미	케이디할부사 평택법인대표
	배우학	베스트인슈&렌트카 대표		이보형	세무법인 세방 대표세무사
운영위원	윤석규	평택대학교 명예교수		안광훈	하나농원 · 하나이벤트 대표
	박철순	(주)평택한냉 대표이사		이충원	(주)씨앤아이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김일강	(주)금풍 대표이사		유범동	캠프햄프리스 수석 공보관
평택학연구소장	박성복	평택시사신문 사장		김복남	여성농업인 평택시 연합회장
친목위원장	김희경	굿모닝챔버오케스트라 단장		최시영	경기문화재단 이사
웃다리문화촌장	조혜경	前 평택대학교 교수		김종구	가우디미술학원장
이 사	김미영	前 국제로터리 3750 총재		김종수	평택농악보존회 이수자
	조남규	(주)JNJ아트컨벤션 대표이사		최승규	굿모닝병원 행정부원장
	오중근	굿모닝병원 이사		이형범	디자인창고 대표
	한상희	(주)동양툴테크 대표이사		홍인석	신성컨설팅 대표
	강길복	평택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당연직	평택시 국제문화국장
	이필욱	(주)마들렌식품 대표이사	직 원	오민영	사무국장
	유평림	前 평택택시 상무이사		유연주	경영지원부
	이승우	(주)하이오 대표이사		최희련	
	여운정	금호타이어 원곡대리점 대표		강수진	
	장종덕	장종덕한의원 원장		최인경	
	김혜영	前 평택시의회 의원		조건희	
	이신복	교보생명 PB센터장		기우찬	문화사업부
	최창환	목화화원 대표		최치선	
	김규동	(주)케이와이케이종합건설 대표이사		황수근	
	김성환	(주)에이치 코리아 대표이사		강하늘	
	공서구	알리앙스 대표			

평택문화원 오시는 길



대표전화 031.655.2002
주소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77 평택문화원

전송 031.654.8807
홈페이지 www.ptmunhwa.or.kr

제37호 소사별 원고 모집

평택의 종합문예지 <소사별>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
시민여러분의 글과 작품을 접수 하고 있습니다.
채택된 작품은 편집위원회에서 검토 후 <소사별>에 실어 드립니다.

<소사별>에 작품과 글을 보내주실 분께

- 원고마감 : 2022년 2월 28일
- 원고 접수처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77 평택문화원
- 전화 : 031.655.2002 전송 : 031.654.8807
- 이메일 : ptmhw@naver.com

※ 원고 접수 시 성명, 주소,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세요.
※ 원고, 의견을 보내주신 분께는 소정의 기념품을 보내드립니다.

추억을 기부하세요

여러분의 과거가 평택의 미래가 됩니다.



<생활자료 및 평택관련 자료수집>

의식주생활 의복, 식기류 등

생활기록 사진, 일기장, 가계부, 졸업앨범

새마을운동기록물 등

상업 저울, 바구니, 나무간판, 기념품, 사진 등

각종 캠페인 자료 포스터, 기념품, 사진 등

기타 평택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

주소 (17901) 평택시 중앙로 277 평택문화원

전화 031.656.0600

팩스 031.654.8807

홈페이지 www.ptmunhwa.or.kr/

※ 기증기탁을 원치 않으시더라도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계신다면 꼭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조사 후 곧바로 돌려드리겠습니다.